

# 최종보고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충남 지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2021. 6.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 목 차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	1
1.1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와 현황	
1.2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1.3 충남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과 지역사회 활동	
2.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8
2.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유형	
2.2 생활 실태 현황	
3.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지원기관 .....	17
3.1 현행 제도의 현황과 평가	
3.2 지원기관 현황과 역할	
1) 충남 15개 시군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과 사업 내용	
4. 충청남도 내 대안학교 현황 .....	34
4.1 대안학교의 현황과 교육과정	
4.2 대안학교 선택의 동기와 이행경로(재학생, 졸업생 현황)	
1) 대안학교 선택 동기	
2) 대안학교의 실제 생활	
3) 대안학교와 진로	
5. 금산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활동 .....	49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5.2 금산간디학교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활동	
1)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2)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3) 금산 금빛시장 월장	
4)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	

5) 별무리 학교의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5.3 비진학 청년들의 지원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 및 청년 지원제도 현황

- 1) 청년 정책의 시작
- 2) 충청남도 청년정책
- 3) 금산의 청년정책
- 4) 그 외 금산에서 활동된 비진학 청년 지원 사례
- 5) 제도의 필요성과 평가
- 6) 의미와 한계

6.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지원 모델을 위한 리빙랩 기획 ..... 84

6.1 리빙랩 기획의 배경

6.2 리빙랩 내용 “청소년 청년진로 플랫폼 카페 운영”

- 1) 운영 방식 및 교육생태계 구축
- 2) 프로그램의 내용

6.3 유사사례

- 1) 옥천군 청소년 카페 둠벙
- 2) 산청 명왕성
- 3)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로잉

6.4 기대효과

## <표 목차>

표 1 연도별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충청남도, 2020) .....	9
표 2 충청남도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	9
표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인터뷰 현황 .....	11
표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	12
표 5 설문조사 결과 .....	12
표 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현황(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19	
표 7 충남 꿈드림 센터 2020~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공모 사업 .....	21
표 8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 현황(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4
표 9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현황(금산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25
표 10 2021년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26	
표 11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복귀 현황 .....	29
표 12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진입 현황 .....	30
표 13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표 .....	31
표 14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파악(충남대안교육협의회, 2021년 1월 28일 기준) 35	
표 15 산티학교 교육과정 .....	40
표 16 <2021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우수·희망 장학생(고등) 선발 인원과 규모> · 55	
표 17 <2021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우수·희망 장학생(고등) 학교별 배정인원 비교> · 55	
표 18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현장리스트(금산, 대전, 옥천, 완주 중심) .....	60
표 19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연도별 활동 현황 .....	74
표 20 충청남도 청년 정책 현황과 예산 .....	76
표 21 충남 청년관련 활동 및 프로모션(2020년) .....	77
표 22 금산군 청년정책의 내용과 예산 .....	78
표 23 금산군 청년정책 예산 비중 .....	78
표 24 삼선나눔과복지재단의 청년 지역 활동가 인턴십 지원 사업 .....	78
표 25 완주군 씨앗협동조합 로잉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	92

##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	1
그림 2 충남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꿈드림 홈페이지 참고) .....	20
그림 3 꿈드림 홈페이지의 충남 지역 소식 .....	21
그림 4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	38
그림 5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3년 교육과정 표> .....	39
그림 6 별무리 학교 교육과정 개요 .....	40
그림 7 금산군 꿈드림 센터 이용절차와 프로그램 .....	50
그림 8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	57
그림 9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자기발견 과정 .....	58
그림 10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진행과정 .....	65
그림 11 금산시장 월장 .....	67
그림 1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월장 부스 .....	68
그림 13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 .....	70
그림 14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	79
그림 15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활동 .....	82
그림 16 금산군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 네트워크 .....	86
그림 17 청소년 플랫폼 카페 프로그램 예시 .....	87
그림 18 옥천군 청소년 카페 둠벙 .....	88
그림 19 카페 둠벙의 청소년 활동과 공간 .....	89

##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1.1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와 현황

1.2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1.3 충남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과 지역사회 활동

#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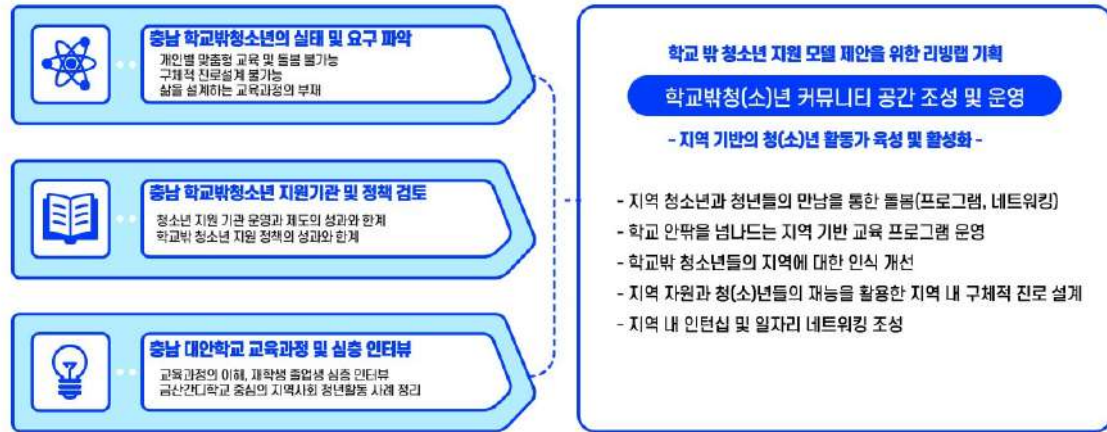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 1.1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와 현황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 그리고 지역(고향)을 떠난다. 학교 밖과 안을 경계로 청소년들의 방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청년 뿐 아니라 지역 전반에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은 15개시군 가운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10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서천군과 청양군, 부여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sup>1)</sup>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역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된다.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고령화되고 침체되어 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2020년 5월 기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동아일보 2020년 10월 13일, 충남-충북 60% 이상이 '인구소멸위험지역')

관한 조례」 2조의 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19년 현재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2014년부터 정부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15개 시군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와 충남 학교밖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5년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국회입법조사처, 2020)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24%에 달하기에 법적 보장 및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에 있게 되면서 소속감의 상실, 편견, 진로 탐색의 어려움, 가족갈등, 이탈 행동 등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과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지원은 물론 진로 및 상담 복지 지원,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등 다양하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 송미영,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 및 규모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9. 2019년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주민등록상 학령기 인구(249,052명)에서 244,426명 (학령기 학생 수(246,015명) - 순학업중단자 수(1,589명, 학업중단자에서 복학생 수를 마이너스 한 값)을 마이너스 했다. 그 결과,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은 4,626명(2018.3.1.~2019.2.28.)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2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안학교와 지원기관 밖에 위치해 집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 및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예산은 종합적인 대책 또는 체계적인 지원기관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대안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과 해당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분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학교 밖과 안을 구분하는 경계는 학교 밖을 나서는 순간 다른 부류의 청소년들로 경계를 가지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의 방법과 기회를 찾는 도전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시선을 의식하고 매 순간 이를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에서는 대안학교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안학교 입장에서는 열악한 대안학교 재정 구조 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일부를 활용해서 교육 활동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계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지정원칙을 가지고 교사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 공간 임차료, 기관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sup>3)</sup>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 5곳을 선정하여 하반기 4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별로 지원 정책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를 통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과정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된 정확한 조례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2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 법률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3)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329>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측면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진일보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초기 대안학교는 공교육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인식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새로운 교육적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학교 등 공교육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교육 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법률의 제정이 큰 기점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지원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이 법률을 근거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기준, 교원의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또한 재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든다.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정 부분의 관심과 지원은 학교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러한 지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것 자체도 큰 좌절인데다, 학교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학교 밖을 선택한 본인과 그 가정이 온전히 극복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따라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 청소년들이 이후의 어떤 이행경로를 선택과 방향은 지역 사회 기관의 종류와 지원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육자가 정보력을 가지고, 함께 이행경로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대안학교로 진학하여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온전히 학비에만 의지하여 운영을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양육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택에 자체에도 어려움이 크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라는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실험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 밖에서 혼란스럽고 열악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크다.

학교 밖을 선택하게 될 때 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청소년과 그

가정에서 가지는 막막함은 사실 포기과 좌절에 가까울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학업숙려제도와 꿈드림 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안내가 되거나, 소극적으로 제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과 삶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꿈드림과 청소년 상담센터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에서도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고 안내하는 측면에서는 정확한 청소년들의 실태와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어려움으로 고백한다.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는 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집 밖을 나와 적극적으로 삶을 모색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학교를 나와 좌절과 무기력 속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시선에 맞게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작은 농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

### 1.3 충남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과 지역사회 활동

충남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금산이 4개교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sup>4)</sup> 이 중에는 20년 이상의 대안교육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고교 학점제 등 새로운 미래교육에 대한 혁신모델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제도권 밖 교육진로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이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이후로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 기준 2019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약 71.2%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수의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로 유입되고 있는 지점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충남 뿐 아니라 타 도시에서 충남의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전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산군에는 4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의 15개 시 군 중에 가장

---

4) 송미영, 충남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및 타시도 실태 조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많은 수의 대안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금산 다음으로는 천안 서산에 각 3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금산군 4개 학교에는 초 중 고등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630여명의 규모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재학생과 더불어 학교를 거점으로 교육공동체를 이루며 교사와 그 가족들, 재학생 졸업생 가정들이 귀촌해 금산에서 살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인구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안학교들은 각 교육과정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재능에 맞춰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이 있는 곳이 어디나 교육공간이며, 지역사회가 이들의 성장을 함께 돕는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진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대안학교라고 다르지 않다. 지역에서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존중받고, 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한편, 재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금산간디학교는 개교 이래 지역 사회 학교를 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자기발견과 성장에 주목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지역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모두 교육 공간, 교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교육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에서 학교를 운영한지 15년이 넘는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그간에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목적과 지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는 구현되지 못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교육활동을 펼쳐내기 까지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으며,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참여가 절실했다. 2013년부터 졸업생들이 하나둘 금산에 남기 시작했고, 산골 시골 마을에 “별에별꼴”이라는 청년공동체를 운영하는 한편, 금산읍을 거점으로 하는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 청년활동이 펼쳐지게 되면서 금산 지역과 금산간디학교가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금산간디학교의 지역사회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 재학생들과 비진학 청년으로서 졸업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외부적인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동시에 없는 정책과 지원을 함께 만들어간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특정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 지원 정책의 결과는 아니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제안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받았다. 위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험을 위해서는 아주 큰 마중물이 되었다. 이에 금산 지역에서 외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던 금산간디학교의 활동을 주축으로 지원 제도 및 지원기관과 협업을 회고하고, 이에 따른 기회요소와 위기요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충남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지원기관 및 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리빙랩 기획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짧은 연구기간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번 작은 연구에서는 대안교육기관들의 청소년과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대안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청소년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거나 집계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유관기관 선생님들의 인터뷰와 자료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금산군 청년 네트워크 들락날락이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으로 설립되기까지의 약 6년간의 여정은 위에서 정리한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비진학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삶을 설계하고 상상하는데 실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 그리고 금산을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사례를 정리하는 한편, 금산과 비슷한 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청년 활동들을 정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교를 떠나지 않고,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유형

2.2 생활 실태 현황

## 2.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2.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유형<sup>5)</su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학생수(명)	248,554	244,912	242,256	238,888
학업중단 수(명)	1,734	1,809	1,851	2,006
학업중단율(%)	0.70	0.74	0.76	0.84

표 1 연도별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충청남도, 2020)

충남의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학업중단율은 0.84%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현황의 파악은 정책 설계와 정책 계획의 용이성, 홍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규모 파악을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어려움 발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파악되는 청소년 이외에 청소년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정보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주민 등록상 학령인 구 (A)	학생수				학교밖청 소년 수 (F) F=A-(B-E)
			학령기 (만7~18세) 학생수 (B)	학업중단 자 (C)	복학생 수 (D)	순학업 중단자 수 (E=C-D)	
2019	초	249,052	101,765	464	141	323	4.626
	중		56,029	315	85	230	
	고		60,328	1,072	40	1,032	
	대		24,431	-	-	-	
	방계 학제		1,462	4	0	4	
	계		246,015	1,855	266	1,589	

표 2 충청남도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충남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증가 추세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2020년에는 약

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 및 규모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2020) 인용

5266명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학업 중단 이후 학생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학업형은 검정고시 공부, 대입준비, 복고 등,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 취업 등, 무업형은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은 가출을 하거나 보호시설, 사법기관 감독을 받는 경우, 은둔형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가지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4가지 유형의 청소년들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면, 대등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표준으로 정해진 교육시스템에 대해, 자신은 이 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자기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 2.2 생활 실태 현황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충남 지역에 위치한 대안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교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인식 등을 인터뷰하였고,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안학교를 기반으로 또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활동가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으로서의 성장 과정과 지역을 기반으로 삶과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

6)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5)



구분	재학생	졸업생	교사	총
별무리학교	1	1	1	3
풀무학교	1	1	1	3
금산간디학교	1	1	1	3
산티학교	1	1	1	3
금산군 학교밖 청소년센터	2(재직 중)			2
청년 활동가	1(홍성)			2
	1(경남 남해, 대안학교 졸업생)			
합계				16

표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인터뷰 현황

인터뷰와 함께 구글 폼을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sup>7)</sup>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내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학교를 졸업한 비진학 또는 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 등을 총동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대안학교 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 대안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 연구를 통해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의 삶에 대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대안학교 졸업 후 진로와 진학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을 떠나 도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지역에서의 활동가능성, 일자리와 문화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주 기반으로서의 주거 시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지역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7) 참여 링크\_ <https://forms.gle/RSYkCsMCidLhTQKp7>

구분	현황		
참여자 수	99명		
응답자 나이	17-19세: 77.8%	14-16세:14.1%	20세 이상 :8.1%

표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				
현재 선택한 교육과정	90.9% 비인가대안학교		그 외 : 홈스쿨링 등	
졸업후 지역에 남을 의향은	예 : 44.4%		아니오 : 55.6%	
졸업 후 지역에 남지 못하는 이유는	1위(60.7%) 대학진학을 위해서	2위(41.1%) 지역에서의 활동가능성이 없다	3위(37.5%)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4위(35.7%) 문화예술인프라 부족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면 필요한 것은	1위(60.4%) 네트워크(청년, 친구) 형성	2위(58.3%) 지역에서 주거할 수 있는 집	3위(57.3%) 내가 원하는 일자리	4위(45.8%) 지역에서의 활동가능성
졸업 후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할 정책	1위(65.7%) 주거정책	2위(63.6%) 청(소)년 인턴쉽	3위(54.5%) 청년수당	4위(48.5%) 일자리 지원정책

표 5 설문조사 결과

##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학교 면접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대학교는 다닐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봤다고 학교도 못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하나 그런 식으로 저에게 끝까지 이름 소개 한 번을 안 시키더라고요.” - A 대안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아무래도 아직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하면 ‘비행 청소년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식이 점점 좋게 바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박혀 있다보니까 지역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인식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기는 해요.” - B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인터뷰 중

“친척분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 인식이 좋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냐 그러셔서 그건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통학을 할 때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민증도 없었고 학생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인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학생이라는 증거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학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A 대안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자주 마주친다. 우리사회에서 ‘정상’이라고 규정한 조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상’ 혹은 ‘주류’로 분류되는 교육시스템은, 참가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에 맞추지 못하는 존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을 우리사회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한다.

‘학교 밖’이라는 표현자체가 ‘학교 안’을 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지 자신에게 맞는 삶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낙오자나, 철없는 방황을 하는 비정상적인 문제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은채 혼자 힘으로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된다. 그들의 선택이 용기 있는 것으로 존중받고, 다양한 배움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

“학교 울타리를 나온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구요. 제가 검색해보다 우연히 알게 되어, 찾아간 꿈드림 센터에서는, 막상 저한테 필요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유용한 것들이라고 느껴졌어요. 프로그램의 진행도 저 같은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수업이 질적으로 높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학교 밖 청소년 인터뷰 중)

“학교에서 밀려나온 친구들, 히키코모리,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라든지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도시에서의 진로가 사실은 사회로 나가면 다시 똑같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장 생활을 하기 위해 알바를 해야하고 그 알바는 되게 불안정하고 자기 성장을 주도 할 수 없고 20대가 되도, 2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도 사실은 고 언저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있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구요. 도시에서는 자신의 자원으로 일을 해야 일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뛰어난 기술이 있다가나 돈이 많아서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려해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다가나 거기에 대한 스펙들을 개발해야한다거나 그런 자기 자산을 쌓아야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기진로를 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든 기술이든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청년 활동가 인터뷰 중)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면 모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행사는 대부분 학교 안에 있는 존재를 전제하여 기획하고 실행된다. 정상적인 삶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진로찾기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내용이 정상이라고 분류되는 청소년들(학교 안 학생들)의 수요나 수준에 맞추어져 있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방향의 정책 마련은 평생직장의 시대가 사라졌고 평생학습사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국민모두 돌봄의 부재는 아쉬워하나, 학교의 부재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다. 갈수록 활성화되는 온오프라인 연계교육은 결국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사회로 빠르게 연결될 것이다. 학교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과 학습자를 주체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의 등장이 필요하다.

####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

“매년 수가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도 막 최근에 조사를 조금 했었어요. 지금 해마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냥 청소년. 학교 밖이든 학교를 재학 중인 친구들이든 그래서 4,341명에서 지금은 4,199명으로 줄었어요. 한 100여 명 가량 준 것 같은데 점점 줄고 있기는 해요. 지역 특성상. 그리고 지금 21년도 건 아직 인원 조사가 안 됐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왔을 때 10월부터 작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는 센터에 새로 온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3월부터,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지금 한 10명, 8명 정도가 저희 센터 연계되어서 새로 등록을 해서 아마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정확히 평균적으로 몇 명이다’라고는 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기준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들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뭐 어떤 해는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거긴 한데 ‘현재까지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B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인터뷰 중

“경제적 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학교 밖으로 있으면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뭐 취업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물어보면. 최근에 온 친구들은 거의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경제적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는데 저희나라 법상 현금 지급은 조금 어려워요. 원래 자체적으로 현물, 그러니까 물품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이 친구가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진로개발비로만 써야 된다’ 아니면 ‘책을 사는 데만 써야된다’, ‘자격증을 따는 데만 써야 된다’뿐만 아니라 내가 밥을 사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대신 낸다거나. 그런 것들도 조금, 물론 조사가 필요하겠죠.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친구들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소년, 소녀 가장이거나 아니면 따로 나와서 혼자 살거나 뭐 편모 가정,

편부가정, 어떤 뭐 조손, 조모가정, 조부가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직접적인 그런 지원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조금 마련이 돼서 달에.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막 몇백만원, 몇십만원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만원, 10만원이라도 달에. 아동수당은 지금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청소년 수당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결론은 세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이 조금 더 마련이 돼야 될거고, 많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 B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인터뷰 중

학교 밖으로 나가는 선택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배움이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수익자 부담)해야 한다.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충남지역의 학교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알바로 내몰리는 등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액이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존재하는 아동수당이나 청년 수당처럼, 청소년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충청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지원기관**

3.1 현행 제도의 현황과 평가

3.2 지원기관 현황과 역할

### **3.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지원기관**

#### **3.1 현행 제도의 현황과 평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2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공주시와 태안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아산시는 2018년 폐지되었다.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4년 5월 보다 약 4개월 빠르게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각 지자체에서도 2015년 이후 부터 조례 제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2018년 폐지되었지만,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전문화, 세분화 된 영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다.

또한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 청소년과에서 주관부서를 맡게 되어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의 역할도 일원화되었다. 이에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은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분	조례명	제정일자	현 시행일자	대안교육&대안교육기관&후견인 정의 포함여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5.28	2018. 7. 17 (2018.1.16. 일부개정)	×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만 정의
충남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6	2020.4.1	×
천안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1	2020.6.22	○
공주시	-	-	-	-
보령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7.10	2015.7.10	○
아산시	(폐지)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3.16	2018.10.5. (폐지)	-
서산시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10.17	2015.1.26	○
논산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1	2016.1.11	○
계룡시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4.11	2016.4.11	○
당진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9.30	2019.12.30	○
금산군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8.8.30	2019.2.15	○
부여군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8.12.14	2018.12.14	○
서천군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10	2019.10.21	○
청양군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10.13	2015.10.13	○
홍성군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3.2	2018.10.30	○
예산군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9.30	2015.9.30	△ 대안교육기관은 정의 안 됨
태안군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5.31	-	

표 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현황(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을 대부분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된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명칭과 어울리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 2.2 지원기관 현황과 역할

### 1) 충남 15개 시군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번호	지역	꿈드림명	주소	전화번호
16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3층(대연빌딩)	041)554-1380
15	충남	부여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149)충남 부여군 부여읍 의일로 43	041)837-1898
14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충남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35-1388
13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충남 공주시 대동1길 57	041)854-7942
12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3)충남 천안시 먹거리 11길 45,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1)415-1318
11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충남 아산시 충무로 31 동성빌딩 6층	041)544-1388
10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충남 서산시 서영로 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041)669-9056
9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1층	041)746-5935-7
8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충남 계룡시 열사면 문학로 31 문화예술의 전당 3층	042)551-1318
7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57-2000
6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26)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다락원 연남의집 3층	041)751-1383
5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4)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2층	041)953-4040
4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9)충남 청양군 문화예술로 187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0-1071
3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44번길 14	041)642-1388
2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충남 예산군 예산읍 뱃꽃로 214	041)335-1388
1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041)674-2800

그림 2 충남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꿈드림 홈페이지 참고)

15개 시군별로 1개소 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이 운영되고 있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천안)가 있다. 충남 꿈드림은 (재)충남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꿈드림에서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 특성화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꿈드림

| 지역꿈드림 찾기

| 꿈드림 소식

| 채용소식

꿈드림소식

전체 3건 (페이지 1/1)

번호	지역	센터	제목	파일	이름	등록일	조회
3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0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당진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0-02-28	242
2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모집] 계룡시 꿈드림 2차 문화예술체험활동 학교 밖 청소년 모집 안내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19-08-13	212
1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안내] 당진시 꿈드림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최현욱	2015-08-22	228

그림 3 꿈드림 홈페이지의 충남 지역 소식

충남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꿈드림으로 연결하면 전국 꿈드림 전체를 통합한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서 지역 별 꿈드림 소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충남으로 지역을 검색하면 당진, 계룡의 꿈드림 센터 소식은 올라와 있지만 최신 소식은 아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꿈드림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의 꿈드림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자 했을 때에는 지원을 위한 상담과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방법	사업기간	주관기관/지역	비고(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 포함 등 특이사항)
제2회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	영상, 카드 뉴스, 사진, 아이디어 별로 공모받고 시상한다	공모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저작권 위임 동의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 제출	2020.9.1.(화) ~ 10.29.(목) 15:00 마감	충남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2021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모집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자율 주제의 프로젝트 운영(팀 당 활동비 200만원 지원)	프로젝트 지원서, 프로젝트 계획서, 소요예산 계산서,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초상	2021년 4월 ~ 11월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 1인 이상 포함된 청소년(9~24세) 3~10명으로 구성된 8개

		권동의서 각 1부씩 작성 후 방문 및 이메일 접수			팀
학교 밖 청소년 교 통비 지원	만 9~12세는 16만원, 만 13~18세는 20만원으로 연령별 차등 지급	최종학력증명서(검정고 시합격증, 제적증명서 등)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 학교 밖 청 소년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4 세 미만일 경우 보호 자와 동행	2021년 5월부 터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에 2회 이상 참여 한 학교 밖 청소년
2021 인큐베이팅 카 페 <6기> 운영 청 소년 모집	창업, 바리스타, 마케팅 교육/ 카페 <풍당> 사업자 등 록 및 카페 운영/ 카페 운영 자본금, 재료비 등 지원/ 지역 내 커피교육 보조상 사 활동	1. 지원서, 개인정보수 집이용동의서 양식 내 려받아 작성하여 이메 일 제출 2. 전화문의 및 방문 제출	2021.6.7 ~ 6.1 8까지 모집 마 감 사업 마무리 날짜는 기입되 어 있지 않음	충남 꿈드림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충청남도 내 (17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
2021 진로직업체험 공간 소프트웨어 교 육 충.전.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한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작성	2021 6/29~7/2 14:00 ~ 17:00/ 총 4회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충청남도 꿈드림 청소년 선착 8명
제3회 학교 밖 청소 년 진로공모전	영상, 카드 뉴스, 사진, 아 이디어 별로 공모받고 시 상한다	공모전 신청서, 개인정 보수집이용 동의서, 저작권 위임 동의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 제출	2021.9.1.(수) ~ 10.29.(금) 18:0 0 마감	충남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 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도 및 시군 청소년지 원센터 「꿈드림」 방문 또는 전화	X	도 및 시군 학교비 행정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청소년 리더 교육 실시 대학생 멘토 서포터즈단 운영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 공모	X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중학교3-고등학교1 초등학생(학교밖 청 소년)
세상소통카드	교통비 지원			충남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을 이용하는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표 7 충남 꿈드림 센터 2020~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공모 사업

위의 표는 충남 꿈드림 센터 공지사항과 보도자료에서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모전 및 사업 들이다. 전반적인 진로 지도, 학습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위의 표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공모전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학교 안과 밖의 경계 구분 없이 충남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만 학교 밖에서도 대안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도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세상소통카드의 경우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지원해주는 내용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 센터 이용과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남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정책이었다.

## 2) 금산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과 사업 내용

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95년 청소년기본법 제 46조에 의해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서 진로, 또래상담, 대인관계, 부적응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성격이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부모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교육, 금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 현황과 지원인원은 아래와 같다.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 인구는 최근 3년간 4,300명대에서 4,10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또한 2019년 199명에서 2021년 44명으로 파악된다. 2020~20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교 운영이 비대면으로 운영된 배경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증감의 추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금산군에서도 연간 300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년도	9세~18세 청소년 인구	학교밖 청소년 발생인원	연계인원			지원인원			신규인원			성과인원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19년	4,341	28	199	2	201	384	15	399	145	3	148	87		87
20년	4,218	34	123	0	123	292	1	293	207	1	208	108	1	109
21년	4,199	24	44	1	45	197	1	198	44	1	45	131	1	132

표 8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 현황(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년도	개인			교육청 (학교)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관			보호복지 시설			상담기관			교육훈련 기관			지역사회			기타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학교밖	잠재적	합계
19	9	1	10	137	1	138	49	0	49				4	0	4										199	2	201
20	54	0	54	8	0	8													61	0	61	123	0	123			
21	4	0	4	6	1	7													34	0	34	44	1	45			

표 9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현황(금산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이걸 저희가 해마다 지금 연계된 인원들이에요. 지금 대안학교 친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데 최종 숫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쨌든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을 거고 새로 신규 이입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긴 한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저희가 작년에 297명 정도로 알고 있고, 올해 저희가 해마다 목표치 인원을 새로 이렇게 충남 자체에서 잡거든요? 올해 금산 인원이 315명으로 그니까 저희가 발굴, 총 인원. 그 정도 목표치를 잡고 저희도 계속 발굴을 하려고 홍보도 나가고 이렇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금산군의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는 작은 규모의 조직 인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인계하여 진로와 상담 등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 프로그램 현황은 금산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기부여와 흥미를 고려하여 자립 지속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경제 활동을 경험해 보는 실물경제체험과 멘토링,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학교 밖을 나와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자립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활동은 막대한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정보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명	내 용	일 시	대 상	인원
자립지원 두드림 프로그램	두드림 프로그램 기본과정운영	2021년 하반기 예정	학교 밖 청소년	4회(40명)예정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경제원리, 다양한 직업 탐색 프로그램 운영			
실물경제체험	뽀뽀비즈	6월예정	학교 밖 청소년	10명
	사회 진입 전 생산 활동과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체험 해 봄으로서 올바른 경제인으로 성장 도움.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 예정.			
봉사동아리 활동	경로당 방문	4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10명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인식 제고, 지역사회에 참여적인 청소년으로 성장 도모			
문화체험	문화체험	10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20명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취미활동 발견 및 진로 탐색 계기 마련			
꿈드림 멘토링	학습·정서 지원	4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4명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도모,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자격취득지원	대한안전연합 응급처치요원	6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36명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과 처치 방법을 익혀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함.			



자기 계발Ⅰ	제과제빵	하반기 예정	학교 밖 청소년	10명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 계발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응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함.			
자기 계발Ⅱ	패브릭DIY	2021.3.17	학교 밖 청소년	10명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 계발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응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함.			
<div></div>				
홍보 및 아웃리치	하곳길 아웃리치	2021.3.5.~	금산중 고등학교	200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			
<div></div>				

				
<b>검정고시 (스마트교실)</b>	검정고시 영어수학 학습지원	2021.3.9.~	학교 밖 청소년	6명
	기초지식습득과 검정고시 대비 및 합격을 위해 스마트 교실을 운영함			
				
<b>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지원</b>	AI프로그램 코딩 I, II	하반기 예정	금산군 관내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60명
	급변하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로 및 직업군 탐색의 기회 제공 - AI프로그램 코딩 및 로봇 활용을 중심으로 -			
	로봇 코딩 I,II	하반기 예정	금산군 관내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70명
	급변하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로 및 직업군 탐색의 기회 제공 - 게임활용코딩 및 로봇 실습을 중심으로 -			
	프로그래밍 키트 만들기	하반기 예정	학교 밖 청소년	9명
	C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키트 만들기 급변하는 미래 사회, 의료과학기술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군 탐색의 기회 제공			
	ITQ(엑셀)자격 취득	8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6명
	정보화 사회에 맞춰 자격 취득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진입 경쟁력 강화 도모			
	ITQ(PPT)자격 취득	8월 예정	학교 밖 청소년	6명
	정보화 사회에 맞춰 자격 취득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진입 경쟁력 강화 도모			
<b>세상소통카 드</b>	교통비 지원	2021.3.16.~	학교 밖 청소년	20명

<b>지원</b>	만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월 5만원(최대 8개월) 교통비 지원			
<b>급식지원</b>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2021.3.2.~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등록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 내·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b>지정기탁 사업</b>	치과진료 및 장학금 수여	상반기 예정	학교 밖 청소년	20명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료 지원 및 내적 동기 강화를 위한 장학금 수여			

표 10 2021년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입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다.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 자립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년 도	구분	정규 학교	상급학교 진학	방통 중고	대안 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학교 재적응	대학 진학	합계	
							부분	전체	계			연인원	실인원
19	연인원 (건)			1			6	45	51			52	52
	비율			1.92			11.54	86.54	100			100	100
20	연인원 (건)		2					71	71	1		74	74
	비율		3					96	96	1		100	100
21	연인원 (건)		2					130	130			132	132
	비율		1.5					98.5	98.5			100	100

표 11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복귀 현황

년 도	구 분	취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자립역량강화			합계	
		정규	비정규	안정	계	노동부	민간	내일아름 학교	계	국가	민간	계	자기 계발	진로 체험	수상 경력	연인원	실인원
19	연인원 (건)										24	24	11			35	35
	비율										68.58	68.58	31.42			100	100
20	연인원 (건)										35	35				35	35
	비율										100	100				100	100
21	연인원 (건)																
	비율																

표 12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진입 현황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해준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총 83,716,000원 이며, 이중에서 인건비 59,008,750원과 운영비 5,770,680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총 18,936,570원이다. 2017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약 1,425만 원)이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연간 천 만원 이상의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규모 자체가 작다.

항목	세부사업내용	비목	예산액
<b>합 계</b>			<b>83,716,000</b>
<b>인건비</b>	<b>소 계</b>		<b>59,008,750</b>
	기본급	기본급	48,798,400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3,120,000
	가족수당	가족수당	600,000
	청소년상담사 자격수당	청소년상담사 자격수당	360,000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33,500
	퇴직연금	퇴직연금	4,810,800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586,050
<b>사업비</b>	<b>소 계</b>		18,936,570
	검정고시지원	멘토비	800,000
		교재비	400,000
		식비,간식비	397,000
	두드림(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물품구입	178,000
		간식비	100,000
		현수막	22,000
	실물경제체험	간식비	105,000
		현수막	22,000
		물품구입	593,000
	봉사 동아리 활동	물품구입	1,480,570
		간식비	1,000,000
		현수막	22,000
	직업체험	체험비	2,650,000
		간식비	360,000
		강사비	380,000
		현수막	66,000
	자격증취득	교재비	240,000
		현수막	44,000
		강사비	1,100,000
		자격취득비	1,080,000
		간식비	108,000
	자기계발(창극, 원예치료)	재료비	1,200,000
		간식비	360,000
		강사비	1,500,000
		현수막	44,000
	상담지원	활동비	720,000
	멘토링	간식비	105,000
		활동비	700,000
	여비	관외여비	960,000
	안전공제(청소년 보험)	안전공제 가입비	750,000
	홍보비	홍보비	1,428,000
		현수막	22,000
<b>운영비</b>	<b>소계</b>		<b>5,770,680</b>
	보험료	5대보험료	5,770,680

표 13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 인력도 센터에서 채용하는데, 1월~12월 까지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며, 센터 운영인력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위 예산표에서 보듯이 2명의 운영인력이 3천 만 원 정도의 연봉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업무 역량을 펼쳐내기에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와 상담을 전공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이 일을 마주하고 있다. 학교 밖을 나와 방향을 하고 갈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돌봄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태도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사회복지학과 나왔고요. 제가 청소년 상담 쪽으로 전공한 건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하다가 이제 저희 사람들 생애주기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여성분들, 노인 분들 중에서 아동, 청소년 쪽으로는 제가 겪어봐서 청소년들이랑 이야기나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잘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친구들에 욕구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련 직종을 찾다가 마침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쪽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상담센터여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여러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센터의 이러한 노력과 담당자들의 열정이 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사회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한다. 중부대와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형 누나, 동생이 될 수 있는 관계맺기를 시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금산군의 로타리 클럽에 요청하여 회원들이 운영하는 헬스장, 복싱장 등의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센터 담당자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서도 방황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산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금산 문화의 집도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 교육적 경험이 풍부한 대안학교도 4곳이나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미래 센터와 학교운영위원회, 군청의 교육가족과, 각종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교육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행정 등이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4. 충청남도 내 대안학교 현황

4.1 대안학교의 현황과 교육과정

4.2 대안학교 선택의 동기와 이행경로(재학생, 졸업생 현황)



## 4. 충청남도 내 대안학교 현황

### 4.1 대안학교의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명	소재지	운영 과정	학생수			운영주체
			과정별		소계	
계	12개소				1,354	
높은뜻씨앗 스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무길 84-4	초중 통합	초등	90	121	높은뜻연합선 교회
			중등	31		
드리미학교	천안시 동남구 봉천면 봉황로 89	고등	고교	65	65	재) 드리미협동조 합
나지르학교	아산시 법곡길 21-6	초등 중등	초등	8	10	아산소망교회
			중등	2		
꿈의학교	서산시 대산읍 영전1길 321	중고 통합	중학	137	283	사) 킹덤드림선교 회
			고등	146		
헤브론 원형학교	서산시 운산면 원평 2길	초중고 통합	초등	18	89	헤브론 연합선교회
			중등	27		
			고등	44		
벨국제아카 데미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528	고등	고교	87	87	벨본부교회
시내산중고 등학교	당진시 정미로 683-12	중고 통합	중학	28	53	당진 동일교회
			고교	25		
별무리학교	충남 금산군 남일면 별무리길 56	초중고 통합	초등	10	281	사)교사선교회
			중등	138		
			고등	133		
사사학교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사사길 21	중고 통합	중등	87	181	사사학교교회
			고등	94		
리버트리스 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284	초중고 통합	초등	20	45	비영리단체 리버트리스쿨
			중등	10		
			고등	15		
레드스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중학 고등	중등	25	55	자체운영
			고등	30		
다니엘 TC S 국제학교	태안군 원북면 두음로 466-64	초중고 통합	초등	44	84	자체운영
			중등	28		
			고등	12		
금산간디학 교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로811(중) 금산군 남이면 숲속마을길 7(고)	중학 고등	중등	52	108	(사) 숲속마을작은 학교
			고등	56		

표 14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파악(충남대안교육협의회, 2021년 1월 28일 기준)

## 1) 대안학교의 운영과 특성

### ○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비율이 높다.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돕는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이는 일반 공교육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식과 대비한 대안학교의 큰 특성 중 하나이다.

### ○ 수평적 인간관계 지향

또한 대안학교는 교사-학생간, 학생-학생간 인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돌보는 학교문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점에서는 모든 대안학교가 비슷하다.

### ○ 완결된 교육과정

대안학교는 현행 공교육체제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하여,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학교별로 각자 조금씩 다른, 자신만의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마다 서로 색깔이 다른 뚜렷한 인간상과 교육목표가 존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존재한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진 공교육 시스템과 다른 대안학교의 특성중 하나이다.

### ○ 새로운 학교 표방

대안학교는 새로운 학교를 표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대안적 진로 모색등을 구현한다. 현 공교육 시스템이 담지하지 못하는 전인교육과 대안적인 교육을 이동형 체험 학습, 프로젝트 학습, 자립수업 등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공동체 문화

충남지역의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먹고 자고 학습하며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배우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서로를 위하는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치유와 성장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학교만의 특색있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는다.

### ○ 학비에 의해 운영

충남지역의 대안학교는, 모두 비인가 과정으로,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비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의 높은 학비는, 학부모의 큰 경제적 부담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나, 학교운영과 교사 복지는 늘 열악한 이중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 2) 대안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한계

### ○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

새로운 교육을 표방하는 대안학교는 그 자체로 우리 교육의 오래된 미래이자, 미래교육의 살아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실험하는 상상력의 근원지이다. 그래서 학교 밖을 상상하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선택지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상향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 ○ 부족한 확장성

하지만 한편으로 확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높은 학비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교들 마다 특색 있는 공동체 문화와, 상당기간 집을 떠나 생활하는 기숙사 문화

또한 학교 밖을 상상하는 이들이 쉽게 도전하기 힘든 요소가 된다.

### 3) 각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 ○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진로 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은 3년제 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프로젝트 방법론을 기반으로 창작, 창작, 창업 등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학년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협업과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고등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 진학이다. 고등과정의 진로교육의 핵심은 인턴십이다. 고등과정은 개교 이래 인턴십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을 실천해왔다. 다양한 삶의 기반을 실제로 경험하고 구체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그림 4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 3년 교육과정 표



그림 5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3년 교육과정 표>

#### ○ 별무리학교

금산군에 위치한 별무리 학교는 최근 일반학교의 고교 학점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년별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돕는 다양한 교과와 프로젝트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리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이 명확한 편이다. 학생들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멘토링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동기, 필요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 6 별무리 학교 교육과정 개요

### ○ 산티학교

산티학교는 2008년 국제 NGO 생명누리에서 산티스쿨로 시작하여 2010년 청소년 여행을 기반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하게 되었다. 2018년 경북 문경에서 서산시로 이전하였으며, 산티는 고대 인도말로 평화와 평온을 뜻한다.

산티학교는 금산간디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안교육연대에 소속된 현장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확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와 평등한 권리보장, 경쟁과 승자독식이 아닌 연대와 분배의 가치를 추구, 행복한 인생설계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진로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등	4학년	5학년	6학년
주제	나	우리	세상	진로
중심과제	자립	협동	나눔	통합
학년프로젝트	가족사 쓰기	나만의 책쓰기	창업기획	인턴십
이동학습	극기	탐방	나눔	졸업여행
특징	배움,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활동	생애사 정리

표 15 산티학교 교육과정

## 4.2 대안학교 선택의 동기와 이행경로(재학생, 졸업생 현황)

### 1) 대안학교의 선택 동기

#### ○ 공교육 적응 거부

“저는 중학교를 일반 학교를 나왔는데 적응을 잘 못 했어요. 등교거부를 해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이 된 상태였어요. 다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진 않고 있다가 00 학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캠프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캠프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끊임없이 지금 제가 어떤지 묻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 s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저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수업하고 공부를 하는데 조금 지루하고 그렇게 썩 하기 좋은 그런 영향이나 느낌을 받지 않아서 그냥 그런 일반 공교육에서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했습니다.” - s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중 하나는,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근대교육시스템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이 일정정도 수준의 성취에 이르도록 의도한다.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이 제공하는 표준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 부적응, 성적 부진, 관계 맺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잦은 결석이나 등교거부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표준’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견뎌내야 하는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열패감과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한다.

## ○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입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고 그럼 대학에 간 후에는 나는 또 뭘 해야 할까 약간 그런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중략)--그때 저희 언니가 다니던 D 학교 학교설명회에 가보았어요. 그래서 D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공부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 D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입시 경쟁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나, 자신만의 꿈과 진로를 설계해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지상목표인,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성적 높은 학생들의 들러리가 되기 쉽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 역시 끝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늘 만족스럽지 않은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성적을 높이지 못하는 모든 활동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현재를 끝없이 희생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새로운 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클때는, 자신의 기대에 맞는 학교를 직접 찾아다녀,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의 권유가 작용하기도 한다.

## 2) 대안학교의 실제 생활

### ○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

“일반학교에서는 학생이 뭔가 자기 삶을 직접 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떤 다른 누군가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수업을 들어야해”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저희는 제가 어떤 게 배우고 싶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직접 능동적으로 제 삶의 주체와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 A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배움을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의 배움을 직접 기획해보는 경험이 자신의 흥미 성향 가치 재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시도해보는 삶으로 바뀐다. 이런 삶은 행복감과 자유로움을 준다. 한편으로, 매우 불행하기도 하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팀원들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고, 상황이 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며, 진짜 삶을 사는데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혀간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시도할 때 두려움이 적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봤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봤고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삶을 본 게 제가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모델이 있으니까 불안감도 적고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불안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자립을 경험하잖아요? 다 손빨래 해야 하고 내가 먹을 것도 내가 구해야 하고 잘 집 구해야 하고 그런 자립이 커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 S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해보는 경험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써먹을 배움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된다. 무엇보다 내면의 상태가 많이 바뀐다. 반복되는 실패와 성취 속에서 내면이 단단해진다. 어떻게든 살아진다는 자신감도 생겨난다.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기쁨이나,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년만으로도 인원이 많으니까 뭔가 다 친해지고 다 어울릴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이 학교는 전교생이 적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고 전체가 다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 D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일반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더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며, 어려운 상황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힘든 상황을 함께 풀어나가고 오랜 시절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생긴, 존중과 돌봄의 공동체 문화는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대안학교는 오랜 시간동안 다름과 어려움을 환대하는 연습을 함께 하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학생 자치로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곁에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그냥 3년간 꾸준히 해보는 것. 주변 사람들이랑 한 데 뭉쳐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그걸 해본다는 것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느낌이 들었고 학생 자치가 우리학교에서 빠진다면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학생들의 뭔가 의견이 매년 반복해가지고서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반복해가지고 같은 의견이 나오고 탁상공론이 되는 회의더라도 선생님들이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거를 서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게 선생님들끼리 회의하는 교사회가 있고 학생들끼리 회의하는 학생회, 학생, 선생님 다 같이 하는 회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D 대안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특히, 학생들이 어리거나 경험이 없다고 무시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되거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학교를 만들어간다고 인식하는 대안학교의 운영방식은 서로가 힘들어도 결국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풍성한 밑거름을 제공한다. 이렇게 형성된 학교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각자 개인들이 자신을 성찰하며 기꺼이 이익과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상적인 삶의 경험을 제공한다.

## ○ 재정적 어려움

“정부지원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보내주실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대안학교라는게 일반 공립학교 보다는 많은 돈을 내야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이기때문에 기숙사 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수만이 갈수있는 학교이지 않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선택할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하긴합니다.” - S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단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들? 학비가 많이 비싼데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기 위해 드는 돈들을 감당하셨을 부모님께 미안함도 컸고 부잣집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었고요. 졸업하고 나서 또래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루트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었어요. 나는 졸업하고 뭘 해야 하나 나도 주어진 길, 일반적인 길을 걸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D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학교운영을 전적으로 학비에 의존해야 하는 대안학교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학부모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문턱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낮은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시설은, 구성원들의 복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상황의 발생은 순식간에 학교의 운영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하다.

## ○ 사회적 인식

“학생증을 쓸때 의아한 눈길로 (이게뭐지) 보시기는 했어요. 안 해주지는 않지만. 그리고 미용실을 가면 말을 거는데 어디학교 다니냐? 물어보면 대안학교학생이라고 하면 말이 길어져서 멀리 기숙학교를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 G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중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면접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대학교는 다닐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인가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검정고시를 봤다고 학교도 못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하나 그런 식으로 저에게 끝까지 이름 소개 한 번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게 되게 상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무식한 행동이잖아요.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냥 불쌍해요. 그분 말고는 저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안학교 출신이라고 안 좋게 보면 어쩌나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면접 이후로는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 S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중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 연대하며,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도록 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러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정해진 표준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는 비정상적인 문제아나, 철없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주어진 길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탐색하는 발걸음에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 ○ 졸업생의 삶

“일단 뭔가 경제적으로 쪼달리지는 않아야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미리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G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사회는 많이 다르잖아요. 학교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본인이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에 좋은 어른들, 내가 편하게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저 요즘 힘들어요” 그런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면 힘을 내가 지고서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는 학교만의 철학이 있고 그거를 지켜 나가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청년들한테 그렇게 던져주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던져줄 만한 스승 같은 분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이 들을 수 있게. 학교만의 학교 철학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만의 사회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좀 나름 지양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룹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 D 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숙제가 동시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특수한 형태의 교육을 받은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한국사회를 더 나은 미래사회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정반대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철부지나 문제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키워내도록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키워가고, 길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공동체와 멘토가 필요하다. 그들의 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조력이 절실하다.

### 3) 대안학교와 진로

“요즘 청년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유행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뭔가 청년들을 불안한 존재로 만드는 요소? 정확하게 그런 요소들이 뭐라고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요소들을 너무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좀 말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A대안 학교 졸업생 인터뷰

대안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대안학교 졸업생들에게 진로 찾기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졸업생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꼭 필요하다. 불안 속에서 단기 알바에 허덕이며, 소진되어가는 시간보다는, 소속감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노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생겼네? 이거를 어디다 쓰지?”, “명품 광고를 많이 하네, 저게 좀 있어 보이네, 저거 사야지.”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좀 더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는 게 기본 놀이인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 건강하고 재미난 우리들만에 놀이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작은 긍정적인 변화, 성공의 경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뭔가 같이 연대해가지고 재미나게 놀이를 하는 게 재밌다. 그 맛을 한번 알게 되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D 대안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꾸리거나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는 속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게 도와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그런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집이요 집!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뭘하죠. 집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지역에는 서울에 비해 청년 지원이 많이 없는 거 아쉬워요. 문화 생활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도 아쉽고 대도시에만 문화적 인프라가 너무 밀집해 있어서 지역에서도 그런 문화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필요해요. 혼자 살려면 외로워서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 00 학교 재학생 인터뷰 중

로컬은 대안학교 졸업생들에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곳이다. 심한 경쟁과 높은 물가, 열악한 주거환경이 있는 대도시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청년 그룹이 형성되어, 그들만의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

## **5. 금산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활동**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5.2 금산간디학교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활동

5.3 비진학 청년들의 지원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 5. 금산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활동

###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과 절차는 대부분의 꿈드림의 매뉴얼에 따라 모든 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7 금산군 꿈드림 센터 이용절차와 프로그램



꿈드림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꿈드림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각 해당 지역의 꿈드림 센터에 대한 리스트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도 안내되어 있다.

해당 지역 꿈드림 센터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금산군에서 학교를 떠난 경우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센터 직원 관리자 사이트와 교육청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금산에 위치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일반 학교 재학 중에 자퇴를 하게 될 경우 저희 쪽에 연계의뢰가 와요. 그럼 저희가 연락을 취한 후에 센터랑 접촉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센터에 지원받지 않고 홈스쿨을 하겠다(는 등의 의사확인) 라고 진행해서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연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활동도 많이 나가요. 저희가 여기 관내에 이제 경찰서가 됐든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요렇게 홍보를 나가서 저희 센터 이름을 알리고 그러다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자퇴를 하기 전에 작년까지는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필수적인 상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선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학업 복귀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친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퇴를 그래도 하겠다 또는 다시 학업 복귀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 밖 저희 지원센터로 연계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집안 개인적인 경제문제나 가족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 규칙이나 아니면 교우 관계, 그 다음에 따로 희망하는 진로, 직업이 있어서 학업, 학교를 다니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사전에 빨리 조금 배우고자 하는 명목으로 나와서 그런 유형의 친구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금산군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정\*\*님 인터뷰)

금산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또래상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온라인 부모교육, 청소년 상담 봉사 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한다면 교육청 또는 경찰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공유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이나 실태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후에 센터를 이용하여 이후 생활, 학습, 진로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지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센터와의 연계 과정에서 센터를 이용하겠다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있는데, 사전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절차가 자칫 학생들의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응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지원이나 도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 바뀐 정책에 따르면 일단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를 받게 변화되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지원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금산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다. 열악한 인력과 예산 규모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2020년 프로그램 중 “학교 밖 청소년 창극 흥부야 놀자”는 2020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sup>9)</sup>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 하던 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계발, 동기부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창극 추진을 계획하였다. 드라마 ‘아씨’ 극작가(임희재)가 금산 출신으로 문화예술 지역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시도를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지역 내 청소년 창극 전문강사 사전 만남을 통해 창극에 대한 소개 및 진행과정, 지도 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준비한 창극을 작게나마 공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공연까지 해내는 것을 목표로 창극 지도를 당부드리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창극을 어떻게 접근시켜야할지 같이 고민하고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프로그램 구성 요청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창극프로그램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

9) 2020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 사례집

위촉된 청소년들에게는 개인별 접촉을 통하여 직접 참여를 권유하고 안내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창극이라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청소년들이 소품(집, 박 등)부터 포스터 제작까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간 응집력이 생기고 자발적 동기 유발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창극 공연에 지역주민이 분장 재능기부를 하는 등 지역 관심 있는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창극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부터 학교 밖을 떠나 위촉된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지역사회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선생님 한분이 도맡아 진행하였다.

교육에 있어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해 일을 시작한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해보았다. 두 분은 사회복지와 상담을 전공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금산에 오셨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지원들이 중복되거나,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였다.

경제적 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학교 밖으로 있으면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하기도 하고, 취업 걱정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온 친구들은 (꿈드림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경제적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저희 나라 법상 현금 지급은 어려워요. 원래 자체적으로 현물, 그러니까 물품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접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장학금 명목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명목에 맞게만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진로개발비 또는 책을 사야 한다. 자격증을 따야 한다 라는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밥을 사먹거나 옷을 사 입는데 쓰거나,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럼

관리비를 대신 낸다거나. 물론 조사가 필요하겠죠. 무작정 그렇게 지급이 되면은 어쨌든 세금이니까.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친구들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소년, 소녀 가장이거나 아니면 따로 나와서 혼자 살거나 뭐 편모가정, 편부가정, 어떤 조손, 조모가정, 조부가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직접적인 그런 지원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조금 마련이 되면 좋겠어요. 한달에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막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만원, 10만원이라도(지급되면 좋겠어요.) 아동수당은 지금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청소년 수당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이 조금 더 마련이 돼야 될 거고, 많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금산군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정\*\* 선생님)

올해 금산군 자체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100만원씩 장학금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산장학재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만 장학금이 나간다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외되는 거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니까 이게 조금 지자체에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받았었고 ...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금산군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정\*\* 선생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많다고 한다. 가정의 어려움, 돌봄의 부재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학교 밖을 나오는 경우 생활 자체의 어려움에 놓여질 수 있다.

금산사랑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경우 학교 안 밖을 가르는 지원 기준, 지원액의 차이가 선명하다. 새롭게 시작된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원자체에서 배제되는 한편,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가정에서 온전히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쓰여 지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비용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교육이 보편적이다 혹은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을 위한 지원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비. 특히 이제 제일 큰 건 교육빈데 일반학교에 있으면 보통 한 학생이 1년에 약 천만원정도의 실제 교육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에서 내주는 거지만.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약 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통계상. 천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국가가 쓰고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데 그러한 지원을 못 받고 본인이 다시 또 천만원 정도의 돈을 본인이 이중 지출을 하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학생이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이 상당한 경제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여행을 다니거나 자기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이면. 한 6,7년 다니면 6~7천만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사거나 세계여행을 한 두 바퀴 돌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총체적인 수업료나 지원 시스템이, 그런 비용 지원이 안돼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별무리학교 교감 박한배 선생님)

장학금 종류		선발(예정)인원	지급액	비고
계		57	57,000	
인재육성 장학금	우수 장학금	41	41,000	
	희망 장학금	16	16,000	

표 16 <2021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우수.희망 장학생(고등) 선발 인원과 규모>

공립학교		금산군내 대안학교 <sup>10)</sup>	
학교명	배정인원	학교명	배정인원
금산고등학교	12	금산간디학교	1
금산산업고등학교	6	별무리학교	3
금산여자고등학교	12		
금산하이텍고등학교	6	사사학교	1

표 17 <2021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우수.희망 장학생(고등) 학교별 배정인원 비교>

그 외에 많은 복지적인 정책 있잖아요? 교복이나 급식비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외가 돼요 실제로. 저희 아들은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30만원을 그냥 줘. 왜 주냐면 아빠가 여기 살아. 금산에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줘요. 근데 별무리학교를 다녀, 아빠가 여기 살아. 근데 이 아이는 돈을 안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찾아가기도 하고 문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배제시켜놓은 관행들이 있어요. 그런 지원 시스템에서 배제시켜놓은 관행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보통 덴마크나 이런 곳은 70%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교육과정도 다양하지만, 다만 교육의 선택권을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돼요.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야 돼요.(별무리학교 교감 박한배 선생님)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학교 안과 밖을 경계로 지원액과 기준의 차이도 명확하다. 이 지원도 2019년 금산군 대안교육협의회에의 끊임없는 제안과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복지와 지원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박한배 선생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5.2 금산간디학교,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활동

### 1)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 ○ 인턴십 교육과정의 목적과 지역성

금산간디학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과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은

---

10) 금산군 대안교육협의회에 속해있는 레드스쿨은 배정인원이 없다.

다양할 수 있지만 금산간디학교는 교사가 직접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지역활동가이자 교육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턴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마다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매트스쿨의 사례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다.



그림 8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금산간디학교는 2007년 금산에 개교하였고,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철학을 기초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와 우리를 넘어, 사회적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인지 메이커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 인턴십 교육과정은 개교 이래로 꾸준히 진행해온 그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와 현장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특히나 고등과정 친구들은 졸업을 한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실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림 9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자기발견 과정

인턴십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정체성을 현장 경험을 통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인턴십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장을 실제 삶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졸업 후에 대학을 가거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좀 더 깊어진다면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교 밖에서 혼자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졸업생의 말을 빌리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교내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에 목적이 있다면, 인턴십은 사회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고, 그를 위한 연습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현장 실습을 넘어 학생들이 관심 있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고 섭외를 하고 탐방을 가거나 일정 시간 이상 현장을 경험하고, 관계를 확장해가는 것이 인턴십의 내용이다. 최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는 사회 혁신 분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해 볼 수 있는 현장들이 다양해진 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장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

금산간디학교가 금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지역과 연계한 교육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교육적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로 교육을 고민하면서,



인턴십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떠나들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시기가 언제든, 교육 현장이 어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체인지 메이커를 표방하고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면서 금산 지역은 이를 실험하기 위한 좋은 교육적 활동 무대가 되었고, 금산의 지역 자원을 재조명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인턴십 현장을 발굴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 프로젝트, 에너지전환프로젝트 등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이며, 금산의 양조장, 노인요양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의 집 등은 훌륭한 인턴십 현장이 되어 주었다. 학생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금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지 못했던 금산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금산에서도 삶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인턴십 코디네이터로서 교사의 역할

2015년부터 인턴십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현장 네트워크의 효율을 위해 인턴십 코디네이터라는 보직을 신설하여 인턴십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화와 현장 관리의 체계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현장 정보, 섭외, 네트워킹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코디네이터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현장 탐방, 현장에 대한 소개, 섭외과정지원, 현장 점검 및 협약, 멘토 관리 등 인턴십 전 과정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학생의 진로와 현장을 매칭 시켜주고 새로운 현장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안에 있다 보면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 안의 생활과 상황에 갇히기 마련인데, 코디네이터의 경우 외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과 교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교사인 코디네이터는 교사와 활동가, 기획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오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는 돌봄과 배움이 충만한 교사역할을 해야 하고, 외부 활동에서는 참여하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기획자가 되기도하고 활동가가 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이나 활동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도움과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턴십 현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금산간디학교를 포함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코디네이터 교사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내외부 활동과 더불어, 서로 간의 정보와 자원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왔으며, 20여년의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의 인연으로 인턴십 현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 ○ 지역 기반의 인턴십 현장 현황과 역할

이름	분야	주소
금산평화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461
신명나는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 316-6
인삼골 건강마을	노인복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273
금산양조장	주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124-2
두루미책방	동네책방	충청남도 금산군 하옥리 335-12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문화기획,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하옥리 335-12
조사장커피	커피, 창업	충청남도 금산군 하옥리 335-12
대전 (주)윙윙	문화기획, 도시재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7-1 2층
대전 도시여행자	서점, 카페,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중교로73번길 6
공감만세	여행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2번지 1층
월간 토마토	잡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층 월간토마토
옥천신문	지역언론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1길 3-1 1층
홍성 젊은협업농장	농업, 청년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253
홍성 평촌우유	낙농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70-13
홍성 민택기 사진관	사진	
완주 청년목수협동조합	건축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미디어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95-5
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기획, 지역	

표 18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현장리스트(금산, 대전, 옥천, 완주 중심)

최근 3년간 인턴십 현장 중에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금산, 대전, 옥천, 완주 지역의 인턴십 현장은 표와 같다. 아래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현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인턴십 현장을 연계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교를 떠나,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공부한 결과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에서의 삶과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편하고 쉽다는 뜻은 아니다. 도시보다는 조금 덜 경쟁적이고, 조금은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면서 작지만 소박한 내일을 가지고 경험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지역도 그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대안적인 삶의 지향을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며,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역의 멘토를 만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인턴십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덜 경쟁적이고 소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속에서의 돌봄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원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역에서의 삶이라는 선택지는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반대로 지역에서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더 아쉽다.

때문에 지역에서의 삶을 실험하려는 이들에게 지역의 선배로서 멘토를 자임하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개방은 소중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인턴십으로 진로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활짝 현장의 문을 열고, 마음의 열쇠를 풀어 삶을 내어준다. 타 도시에서 금산으로 대안학교를 찾아온 청소년들에게도 멘토들의 삶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청년이 되기도 한다.

결국은 청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사람이 삶을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게 엄청난 가능성이고 증거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지금은 조금 지체된 것 같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의주시 하고 있거든요. 간디의 사례를. 그리고 별무리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간디의 사례가 있고 별무리 사례가 있으면 이게 시너지가 돼서 좀 더 다른 또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서.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금산을 다 장악을 하세요. 청년의 고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좋은 건 학교도 있고 베이스캠프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얼마든지 저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어느 지역에 가는 것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굶어죽지는 않아요.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밥이라도 사주죠 가서.(별무리학교 박한배 선생님 인터뷰)

## 2)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 ○ 지역 기반 창업의 의미와 금산군에서의 청년 창업 활동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창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도구 중 하나이다. 물론 전문화, 체계화된 준비도 필요하고, 상업적 행위, 인적 물적 네트워킹 등에 대한 재능도 수반되어야 가능한 생업도구이기는 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부분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다.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창업 CEO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와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창업은 지역의 활성화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삶의 도구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금산과 같은 지역에서 청년 창업의 정체성은 도시와 거대 자본 속에서의 경쟁과 투쟁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과 속도에 맞는 일자리, 살자리로서의 창업이었다.

금산간디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20대 삶을 조망하는 의미에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종종 창업을 목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창업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실습까지 진행하여 실제 창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연습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 입장에서 이런 친구들의 졸업프로젝트를 졸업의 의미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이지만, 앞으로의 삶으로 실현해줄 수 있는 작은 지원과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년몰 조성사업’이 창업 공간과 교육에 큰 기반이 되었다.

사업추진단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청년 창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살자리’가 된다는 청년창업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2017년 8월 드디어 조사장커피와 안녕하식빵을 개업하게 되었고, 충남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된 연하다여관 팀이 금산 최초의 게스트하우스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은 졸업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창업 인큐베이터였다. 조사장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근은 2016년 갓 졸업한 청년인데, 졸업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와 소통이 있는 카페 창업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랑곳의 창업 수업에도 일부분 참여하면서 금산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식빵의 김환도 졸업프로젝트로 건강한 빵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하였고, 아랑곳 창업 힘 기르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구에는 연하게, 지역에는 진하게’라는 모토의 연하다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한 이다솔은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무중력지대로 인턴십을 다녀왔고, 졸업프로젝트로 아랑곳 공간을 실제로 디자인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로의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금산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금산에 일자리와 살자리를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대안학교가 지역사회로의 확장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청년 커뮤니티 들락날락과 금산간디학교, 금산군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이며, 실제로 네트워킹과 커뮤니티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청소년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금산간디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의 과정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금산에서의 창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청소년기의 창업 프로그램은 실제 창업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창업의 아이템을 고민하고 원가를 계산하여, 소비자 분석을 마치고, 창업 실습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성인이라도 구현해 내기 힘든 지난하고 치밀한 과정이다. 아무리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과업이다. 따라서 실제 창업으로 실현한다는 목적보다도 청소년들의 자존감, 자신감 회복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사회 어딘가에서 창업 실습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장소를 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온전히 지역 사회의 몫이다. 청소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을 똑같은 상업적 행위로 보고 경쟁적으로 대하기보다 이들의 성장을 돕고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의 교육적 의미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와 담당교사, 관계자들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금산 금빛시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금산읍 농촌 중심지사업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sup>11)</sup> 총 4개의 팀이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템은 닭강정(닭강정왔닭), 밀크티(오늘의밀크티), 호떡(시크호떡), 그리고 수공예품(대리금손)이었다. 창업 전문강사에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진지하게 과정을 준비하였으며,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정도의 활동이었지만, 아이템 선정,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등 각 분야에 걸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실습 장소로는 금산 금빛시장 내 매대를 제공하였는데, 시장 상인들이 매대 위치 선정과 준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시장의 활성화에 당장 크게 기여하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청소년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금빛시장에 입주하게 된 청년몰 운영의 지속성과 금빛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알게 되었다. 또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과 편견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금산에 청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시장에 와서 장사 연습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한 학기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론 수업을 듣고 배우면서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과제도 있어 힘들었다.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역시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다는

---

11) 충청신문, 금산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눈길, 2018.12. 2.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792>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사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하지 않고 주위시선은 냉정하고 차갑다. 그나마 우리가 고등학생이라서 편의를 많이 봐주신 것 같다. 항상 장사할 때 마다 제일 신경 쓰였던 것은 드시고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이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모든 고객들을 입맛을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금산 안에 있는 어떠한 닭강정 가게 경쟁사보다 더 잘하고 싶었다. 더 맛있었으면 했다. 우리를 제일 많이 도와주시던 상인분이 계셨는데 장사하는 매 마다 칭찬을 못 들었다. 항상 혹평을 하시고 맛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드디어 우리에게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 때 그 기분은 정말 울컥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누구에 칭찬보다 좋았고 좀 울컥했던 것 같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진짜 힘들었다. 많은 걸 느낀 만큼 심적으로 힘들었고 씁쓸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익을 남기고 그런 걸 떠나서 참 좋은 경험했다.

내가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대리님, 상인 분들한테 감사하다. 상인 분들이 가꿔놓으신 시장에 우리가 숟가락 얻듯이 그 자리에서 떡하니 장사하는데도 허락해주시고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했다. (닭강정왔달, 하서영, 졸업프로젝트 발표원고 중)



그림 10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진행과정

프로젝트가 끝나고 결과발표를 교내에서 진행하였다. 어떤 과정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얼마를 팔아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도 중요했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분들에게 받은 도움과 감동이었다.

하나같이 상인들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금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위치한 곳이라는 것 이외에 실제 지역 주민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시장 상인분들을 통해서 금산이라는 지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의 막막함은 이런 데서 온다. 학교의 울타리와 다른 차가운 시선과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편견을 하나둘 마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지역 주민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조금은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3) 금산 금빛시장 월장

#### ○ 월장의 기획과 비진학 청년들의 활동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산 금빛시장 월장이 있다. 월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한번 금산 금빛시장에서 열리는 작은 지역축제이다.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은 2018년 법인 설립 후 첫 용역사업으로 월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본래 월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관 업체인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던 시장활성화 사업이었다.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시장상인분들과 월장 기획팀을 조직하여 월장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 사업의 과정에서 설립하게 된 들락날락 협동조합에 월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을 만들어주었다. 들락날락 협동조합의 설립 멤버는 금산간디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안학교에서 배운 삶의 가치와 방향대로 지역과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비진학 청년들이었다.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도 큰일이었지만, 월장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도 실로 엄청난 기회였다.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청년들은 기획과 공연, 부스 등에 금산간디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별무리학교, 레드스쿨 등의 인근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참여시켰다. 평소



학교 내에서 하던 공연과 체험 부스들을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춤 동아리의 공연, 밴드 공연 등은 주민 동아리와 차별화 되는 콘텐츠였다. 지역 주민 동아리 중에는 춤바 공연, 국악 판소리, 풍물, 통기타 등의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도 다양했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공연 들이 결합되어 더욱 젊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그림 11 금산시장 월장

####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와 그 의미

별무리학교와 금산간디학교 친구들에게는 실제 스텝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월장 안내데스크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실제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역할을 진행했다. 스텝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감,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청소년이지만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하나의 존재와 역할을 부여했다. 월장을 통해서 졸업 후 청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운영에 실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도 갖게 되었다. 월장 기획회의 참여와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실제 사회 참여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텝으로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약간의 경제적 보상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재미도 있고 경제적인 보상도 있는 이 활동이 금산간디학교 친구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지역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들리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월장이라는 행사 자체를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두명 지원을 나가는 정도의 활동이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으며, 학교 전체가 월장의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월장은 비진학 청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밥벌이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활동의 기회와 가능성의 시간이 되었다. 금산간디학교 뿐만 아니라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월장에 부스로 참가하여 활동을 이어나갔다.

뽀뽀비즈(Fun Fun Biz)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제작, 판매, 정산 활동을 진행하는 실물경제체험으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경제적 자립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장과 알참 시장 등에 참여하였고, 팝콘과 천연 수제비누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체험 기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로를 고민하였고, 자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경험을 하였다.<sup>12)</sup>



그림 1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월장 부스

12) 금산신문, 2017, 11. 9.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실물경제체험 뽀뽀비즈 실시

#### 4)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

##### ○ 금산인삼축제의 지역적 의미와 금산군 대안교육협의회의 활동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의 거대 콘텐츠인 인삼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금산의 대표적인 전통 있는 축제이다. 금산 군민들의 삶 자체가 금산인삼축제를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금산인삼의 집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고, 금산축제관광재단을 만들어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직접 주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도 매우 크다.

인삼축제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매년 같은 포맷과 내용의 축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산축제관광재단에서는 인삼축제의 새로운 콘텐츠에 목말라 있었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바라고 있었다. 금산군 대안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인삼축제에 참여를 적극 제안하였고, 축제재단에서도 예산을 마련하여 이들의 도전에 응해주었다.

이 사업을 주관해 운영하는 것도 들락날락 협동조합이 진행해 나갔다. 금산군 대안교육협의회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도 크다. 예산과 전체 진행, 행정과 재단의 협의 소통까지 들락날락협동조합 청년들이 진행하였다.

##### ○ 학교 밖 청소년 기획단 구성과 기획

들락날락 협동조합에서는 금산군 대안교육 협의회를 통해 인삼축제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하였다. 각 대안학교 친구들 중에 다양한 재능과 욕구를 가진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고, 한 학교당 3~4명이 참여하여 13명 정도의 기획단이 꾸려졌다. 기획단 모집은 금산군청 교육가족과에서 협력해주셨는데, 일반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전달하여 1~2명의 친구들이 참여했지만, 외부 활동에 자유롭지 않은 학교 여건 상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였다.

저녁 마다 각 학교 친구들이 금산 금빛시장 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연구소에 모여 기획회의를 했다. 별무리학교가 체험부스를, 금산간디학교 이벤트를, 레드스쿨에서는 공연섭외 등을 맡게 되었고, 들락날락협동조합에서는 전체 진행과

청소년의 날 행사를 기획 주관하게 되었다. 각 학교 별로 담당교사 1인이 학교와 금산읍을 오가면서 지원해주었고, 행사에 필요한 각종 지원들을 담당해주었다.



그림 13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몰려 있다.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울려 퍼지는 락음악의 비트가 예사롭지 않다. 인삼축제장의 새로운 물결. 청소년 문화난장 ‘키위’가 열렸다.

시작부터 다채롭다. 한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함께 주체가 되었다. 간디학교,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 산업고, 금산중,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레드스쿨, 별무리학교, 사사학교, 청년 협동조합 들락날락 등 여러 학교와 현장이 함께 힘을 모았다. 공립학교와 대안학교가 함께 어우러진 행사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게다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주도한 행사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행사임을 내걸었다. 지역축제에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다. 지난 10월 3일 오후 축제장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낭독한 ‘우리 청소년 선언문’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유연하고 다중적인 행사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다. 청년 협동조합 들락날락이 실무를 도맡아 진행했지만 처음부터 일사불란함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별로 각자의 부스/이벤트/공연을 계획&진행하여 저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 하지만 산만하지 않다. 다양한 개성들이 개별로 존재하지 않고 공존하기 때문이다. 학교간 합동공연 그리고 서로의 행사에 힘을 모아주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일까. 준비과정은 매순간 드라마 같았다. 서로 다른 일정, 시험, 방학, 문화 등 서로 만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했다. 늘 반전이 거듭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던 장애물이었다. 때 아닌 태풍 예고, 그리고 행사 당일 개인 하늘은 마지막 반전이였다. 애써 준비해놓은 행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서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은 아름다웠다.

“인간의 본성은 서로의 삶에 기여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마셜 로젠버그의 말이다. 같이 만들

어가는 행사를 위해 서로 도우려 애쓰며 깨닫게 된 것은 매우 단순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금산에 산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학교, 성별, 나이로 서로를 구분 지었지만, 사실 모두가 똑같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금산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 분명히 확인된 건 가능성이다. 우리는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지역에 존재했던 각양각색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만났다. 저마다 서로 다름이 만나며 내가 더 잘 보였다. 별개의 학교에서 배워왔지만, 축제장에서는 같이 만나 배웠다. 하나의 행사지만, 많은 다양성이 존재했다. 수많은 개성이 공존했지만, 하나의 활동으로 모였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어울려 행사를 만들고 더 배워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로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교육과 지역은 빠르게 변할 것이다. 이들은 금산 지역 사회를 무대로 만나고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는 성과가 긍정적으로 누적되도록 뜻있는 어른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이들의 연대와 프로젝트의 성과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교 그리고 현장과 현장이 네트워킹 될 것이다. 학교 밖과 안이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는 학습 생태계가 살아있는 교육도시가 되어갈 것이다. ‘교육도시’만큼 ‘돌아오는 농촌’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는게 또 있으랴. ‘교육도시’만큼 21세기 미래교육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곳이 또 있으랴.

원래 존재하던 우리안의 네트워크를 되살려내자. 우리는 별개의 학교에서 서로 다른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한 몸의 교육활동을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우리안의 연대를 살리고 만들면서 배워가자. 우리는 모두 금산에 사는 금산 사람이다.

(2019년 10월, 금산신문 전문위원 유준혁 칼럼)

인삼축제의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 중 청소년의 날 행사에는 문정우 군수님,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었다. 우리 청소년 선언문을 낭독하고 청소년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주인이자 주체임을 선포하였다. 아래의 선언문은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지역 사회안에 보호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들이 낭독하고 선언하고, 선언문을 군수님께 전달하는 것 까지 모두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청소년 선언문>

38회 인삼축제에서 금산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 문화난장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금산의, 충남의 청소년 청년들 모두의 활동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피부색, 인종, 지역, 나이, 성별, 학적, 학력, 혹은 신념에 대한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배움의 주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확보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을 위한 모임은 물론이고, 교류 여행 학습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지원받고 존중 받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어른들이 만든 문화의 대상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생산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으며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2019년 10월 3일

우리 청소년 일동

####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삼축제 참여와 그 의미

이 같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지속하고 있는가와 별개로 그 당시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참여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축제관광재단, 군청 관계자들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무대와 공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축제의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 위치와 무대 규모, 예산 모두 다른 행사장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열정은 대단하였다. 실제로 인삼축제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무대도 확장하고, 위치도 좋은 곳으로 옮겨보자는 긍정적인 제안을 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안학교 친구들, 청년들이 인삼축제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드디어 인정받고, 공고한 지역사회의 틈새로 조금 스며들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대안학교 안에서는 각종 행사와

교육활동의 주체로 인정받지만, 사회 속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던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 5) 별무리학교의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별무리학교 박한배 선생님과 지역 기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산간디학교와 함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요하는 스마트팜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 하여 자서전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시도 한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병행하고 있다.

별무리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금산 지역 자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별무리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청년활동도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창업으로 청년몰에 떡볶이집 만들면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걸 보면 금산군 정책대환가? (거버넌스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도 하면서. 마을지원센터에서 하는 아마 9월부터 할 것 같은데 마을기자단 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연락이 왔고요, 우리 아이들이 8월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오프라인으로 개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자 기본 교육이죠. 저널리즘이라던가 그런 기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결국 교육해서 마을신문 같은 거 만들 때 학생기자단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연계되면 지역에 남을 수도 있겠죠. 신문사가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우선 채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인턴십도 사실은 금산 지역에다가 금산 중앙 신문사라던가 두 차례정도 했었어요. 지역 기업에다가 인턴십도 하면서 그런 지역 정보라던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밖에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기반 프로젝트잖아요. 독거노인 프로젝트라던가 노인복지 문제, 지역, 이타적 자서전 프로그램. 그런 거 하고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커뮤니티 맵이라고 선배들이 했었는데 금산 전체에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을 일제 전공을 하고 그걸 맵핑을 하고 관공서에다가 제공했다던가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스마트팜. 아이들이 IOT 기술을 현지 농업인에게 교육을 해주고 전수하는 활동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농업인 교육 사업을 창업 쪽으로 해서 아예 해보려고 했었죠 ... 그래서 딸기, 버섯 이런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청년창업 활동을 해보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 지역 연계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나 봉사활동도 자주 가려고 했었고요.(별무리학교 교감 박한배 선생님 인터뷰)

### 5.3 비진학 청년들의 지원 제도 현황 및 활동 사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b>커리큘럼</b>	문화예술분과 - 인문학(언어구조학, 페미니즘, 신화 등) - 몸치유이야기(한방치유)  소셜커뮤니티 분과 - 숲에서 살기 - 시골집고쳐살기  창업분과 - 창업을 위한 힘 기르기	- 몸치유이야기 - 퍼머컬처 디자인코스 72시간(7기) - 생활기술분과 - 소통의 글쓰기	- 몸치유이야기 - 퍼머컬처 디자인코스 72시간(8기) - 금산 MAKERS - 소통의 글쓰기	- 퍼머컬처디자인코스 & 풀학교(15회기) - 소통의 글쓰기(10회기) - 지역문화콘텐츠와 청년 비즈니스(10회기) - 도농교류청년캠프& 워크숍 “침표”(4회)	- 도시재생과 청년활동 - 마을교육공동체와 청년의 역할 - 창업 비즈니스 컨설팅(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기)
<b>청년커뮤니티</b>	- 알파밴드(음악) - 낭만포차(창업) - 주머니 사정(청년주거)  <small>*청년커뮤니티 지원은 충남도청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후원</small>	- 내가대장간(생활기술) - 숲에서 활쏘기(생활기술) - 통통통 밴드(음악) - 전환마을축제 기획 - 알고떠들자(시사토론) - 예술하다(공공예술)	- 페미니즘 - 숲에서 활쏘기(생활기술) - 버스킹(음악) - 청년문화기획 - 공방(문화예술) - 예술하다(공공예술) - 주말극장(연극)	- 청년문화기획 ‘청길동’ - 동아시아 청년연대 - 여성주의 심리학 - 예술하다 - 지역청년문제 연구	- 극단 이중생활 - 두루미 책방 글쓰기 모임 - 타로카드 - 지역청년네트워크 방방공공(사회혁신리빙랩사업)
	3팀	6팀	7팀	6팀	4팀
<b>단계</b>	실험과 도전기	정착기	완성기	발전기	자립초기
	-청년자립학교 아랑곳, 거버넌스 시작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의 정착,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 시작	-배움, 주거, 네트워킹 세 가지 키워드의 완성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지역 청년비즈니스 모델개발 -도농교류 등 청년인구유입 캠프, 실험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설립(2019)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문화상품 디자인 -자립초기단계
<b>후원</b>	교보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충남도청, 금산군청	충남도청, 금산군청	충남도청, 금산군청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표 19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연도별 활동 현황



## 1) 청년 정책의 시작

2000년대 이전에는 청년(2020년 충남 청년기본조례의 기준은 만 18~34세)은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청년 실업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2000년대 IMF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자리 지원 정책에 국한되던 청년 정책이 다원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국적 출생률 저하와 지역의 청년 인구 급감화와 함께 맞물려 이루어졌다. 청년 정책 발화가 이루어지고 활발히 이야기되던 것은 수도권부터였지만, 대도시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최근 지역 소멸이라는 공포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생산인구로서의 '청년'을 주제로 정책을 세우는데 여러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농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청년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정책이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최근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시행되던 '맞춤형 일자리' 정책들과 달리 완주, 충남에서는 홍성 등에서 시행된 다양한 지역형 청년 지원으로 청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여 청년 인구의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지자체들에서 비슷한 노력이 일어났다.

## 2) 충청남도 청년 정책

1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충남에서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충남도청 역시 2016년 청년정책TF팀을 구성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16-02-22 조례 제4094) 또한 제정되었다.

충남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도(미래성장본부장, 청년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 시군(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등) & 민간(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청년활동가, 민간 전문가 등)이 한 달에 함께 모여 선진지 사례를 듣고 충남도에 맞는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거버넌스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충남도청이 발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김혜경 외 2016)<sup>13)</sup>에서는 참여, 일자리, 공동체, 문화·삶을 청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이 농업 영역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경은 2019)<sup>14)</sup>

2018년에는 충남청년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군 순회 워크숍을 통해 세부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그해 취임한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청년토크콘서트를 통한 청년과의 소통과 공감이었다면서, 고령화 저출산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의 해법을 청년과 함께 찾아가겠다'라고 청년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충남도의 청년정책TF팀은 현재(2021년 기준) 공동체 지원국의 청년정책과로 자리매김하였다.

충청남도 청년 정책 시행 (2020년 기준)	
충청남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5개분야(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 7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충청남도 청년 정책 예산 투입 (2020년 기준)	
청년 사업 총 예산	108,402백만원 (국비 37,432 / 도비 70,970)
본청 예산 중 비율	약 1.33% 충청남도 본청 예산액 8,165,663백만원(일반회계, 결산기준)

표 20 충청남도 청년 정책 현황과 예산

13) 김혜경, 김중수, 김진아. 2016.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14) 이경은 2019. 청년 이주민의 대안적 활동과 농촌성의 변화.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청년관련 활동 및 프로모션 (2020년)	
횟수	4회
행사명	1. 도지사-청년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 (20.7.14./대회의실/정책토론 및 방안모색) 2.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식 (20.9.19./대회의실/청년정책 관련 토론 및 소통) 3. 청년네트워크 전국 교류회 (20.11.13~14./오엔시티호텔/청년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 및 방안모색, 우수사례 발표) 4. 도지사-청년직장인 소통·공감 토크 (20.11.27./주식회사 이티에스/청년과의 토크콘서트 및 정 책 제안)

표 21 충남 청년관련 활동 및 프로모션(2020년)

### 3) 금산의 청년 정책

2017년 이전, 금산군의 청년 정책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영농후계인을 위한 정책과 대학생 장학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금산에 주소를 두고 서울로 진학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등) 2017년 금산군에서는 기획감사실 내에 '지역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다.

인구정책 전담팀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 성장률 저하, 소비지출 감소 등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전략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6개 분야 35개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충청도에 구성된 청년정책TF팀과 발맞추어 금산군에서도 비진학 청년을 포함한 청년정책도 함께 시행되기 시작했다.

금산군 청년 정책 시행 (2020년 기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32백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7백만원
청년 쉼어하우스, 청년 연구소	80백만원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55백만원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20백만원

표 22 금산군 청년정책의 내용과 예산

금산군 청년 정책 예산 (2020년 기준)	
청년 사업 총 예산	794백만원
본청 예산 중 비율	약 0.16% 금산군 본청 예산액 480,519백만원

표 23 금산군 청년정책 예산 비중

#### 4) 그 외 금산에서 활용된 비진학 청년 지원 사례

청년 지역활동가 인턴십	
주관	삼선재단 (민간공익재단)
내용	<p>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진로를 찾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며 마을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뿌리 내린 멘토(단체)가 이 청년들의 일과 배움에 함께 하며 성장을 돕고, 재단은 청년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p> <p><b>길찾기인턴십</b> 농촌에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10대 후반~20대 중반의 청년 특히, 농촌지역 대안학교 졸업생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청년프로그램 참여자</p> <p><b>청년인턴십</b> 지역사회단체의 지역연계사업에서 구체적인 역할로 참여하는 20대 중반~30대의 청년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개인 영농 외의 지역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p>
비고	

표 24 삼선나눔과복지재단의 청년 지역 활동가 인턴십 지원 사업

##### 5) 제도의 필요성과 평가(금산군 들락날락 청년커뮤니티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 14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 ○ 들락날락 청년 커뮤니티 설립 배경

충남의 비인가 대안학교 14개 중 금산은 군 단위지만 4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금산간디학교는 10기 이상 졸업생을 배출하며 오랜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안학교이다. 금산간디학교에서 2015년, 지역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해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부터 시작해 다양한 '청년문제해결'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추세였다. 금산간디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까지 대안 교육을 받으며 졸업해 20대로 성인이 된 졸업생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거나 대안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만들어가기에 사회는 녹록치 않았다. 졸업생들에게 집중하니 지역이 눈에 들어왔고, 금산군 내의 청년들이 보였다.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이슈는 비단 졸업생뿐 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청년들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였다.

###### ○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제안자로

이러한 흐름에서 출발한 금산군 청년 네트워크 들락날락은 도·군의 정책을 기반으로 모여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재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금산간디학교와 금산군 지역을

뛰어내는 기획을 담은 제안서로 2015년 공익재단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가량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왜 금산간디학교 졸업생은 지역에 남지 않고 도시로 떠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들락날락은 배움, 주거,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였다. 금산간디학교 졸업생을 포함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금산에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모일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의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청년들을 모으고 설문했으며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이라는 그들만의 청년자립학교를 만들어 개성 있는 강좌들을 개설해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청년과정으로서도,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청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도 예시가 되었다.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청년 활동은 2016년에 신설된 충청남도 청년정책TF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 결과로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구성 구축을 위한 '지역착근형 인재육성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고 시·군의 매칭 사업 충남 도내 5개 지자체에서 시작되었다.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 유관기관이 주관해 나갔다.<sup>15)</sup>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청년 커뮤니티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3인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2017년 도청과 발맞추어 금산군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군과 연결점이 생긴 들락날락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완주군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청년 세어하우스'의 사례를 충청남도에 제안할 수 있었고 금산군에서도 '청년 세어하우스'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발판을 제공하였다. 세어하우스 사업은 마찬가지로 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8천만 원의 예산이었지만 충남 시·군에서 청년 정착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세어하우스는 청년인구 유입과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의

---

15) 중부매일 2017.02.27 최현구 "청년인재 육성 공모 도내 5개 시군 선정"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576>

물꼬 역할을 했다. 금산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시행 첫 해 단독주택 4곳, 다가구 주택 2곳 등 6개소의 주택에 도시에서 찾아온 15명의 청년들이 입주했고, 단순히 주거해소뿐 아니라 일자리, 네트워킹과 연계한 '지역형 청년 플랫폼' 구축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였다.

청년 자립학교 '아랑곳(지역착근형 인재육성사업)' 등 지역 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 주거 해소는 물론 개별화된 도시와 다른 삶을 나누는 방식의 '지역형 삶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금산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청년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갔다.<sup>16)</sup>

이 외에도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인턴제'를 제안하여 군비 사업으로 이루어 내기도 하는 등 정책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제안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당사자 주도성

들락날락은 커뮤니티의 특성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문화예술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모으고 자신들의 필요성을 위한 기획을 해나갔다.

자립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지속가능한 '밥벌이'를 하고자 2018년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내에 소속되었던 청년들이 모여 '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 들락날락을 설립한 것이다.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금산 최초의 소품샵인 '여우잡화점'과 독립서점 '두루미책방'을 창업했다.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금산월장 행사를 매달 진행하였다. 금산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우수사례집에도 소개되었다.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에서 시행했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에 참여하여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본소득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

16) 디트NEWS24 2018.07.04 이정석 "금산군 청년쉐어하우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128>

하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그 내용이었다.

농촌 지역 청년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캠프를 열고 지역의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한 과정은 2019년 금산군 여성정책거버넌스의 임원으로 참여로 이어져 현재 위원장으로서 젠더거버넌스를 이끌고 있다. 충남청년네트워크 권역 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참여해 금산군과 충청남도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

2018년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청년 20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충남 청년네트워크 통합 워크숍'에서는 도내 청년들이 정책 제안 및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의 공유공간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였는데, 워크숍에서는 특히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청년활력공간 LAB조성, 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사업을 꼽았는데, 위 사업 모두 금산에 유치되어 운영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생태계를 하나씩 조성해나갈 수 있었으며,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15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활동



## 6) 의미와 한계

들락날락은 금산군의 청년활동을 대표하는 청년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금산뿐만이 아닌 인접 지역 옥천, 완주를 포함해 전국 각지 청년 커뮤니티들과 연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며 비인가 대안학교의 졸업생 및 비진학 청년의 다음 단계 모습을 그려보는 지평이자 선진사례가 되었다.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프로그램 '넥스트로컬'와 협력 지역매니저 역할을 맡아 도농교류와 지역 확장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들락날락의 이러한 사례들은 자발적인 커뮤니티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정책이 맞물렸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획일적인 정책이 선행된 이후에 유의미한 청년 커뮤니티가 생성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수혜자들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혹은 그 반대로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활용의 폭이 아주 자유로운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정책의 시행에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이를 진행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로서의 어려운 지점과 더불어 비효율성과 피로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산군 청년 세어하우스 사업의 경우 다른 군 단위와 다르게 정책 설계와 진행에 행정과 민간이 신속하게 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부서의 안정성 등으로 민간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청년들의 공동체성과 문화를 담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청년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인 자립기로 넘어가는 이행기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되, 행정과 민간이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업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6.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지원 모델을 위한 리빙랩 기획

6.1 리빙랩 기획의 배경

6.2 리빙랩 내용 “청소년 청년진로 플랫폼 카페 운영”

6.3 유사사례

6.4 기대효과

## 6.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지원 모델을 위한 리빙랩 기획

“어떻게 하면 청소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까?”

### 6.1 리빙랩 기획의 배경

금산에는 대안학교가 4곳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학교 졸업생 청년들이 들락날락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립기반을 실험한지 6년째 된 지금, 금산 지역의 청소년들은 금산에서의 삶이 아닌 도시, 대전, 서울에서의 삶을 막연하게 따르고, 어른들은 이들을 경쟁과 도시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청년 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문제의식을 전하고,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산군대안학교협의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금산엔사람들 등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돕는 조직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산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며 대안학교에 다니는 다양한 친구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금산인삼축제와 교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만나고는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하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금산읍을 거점으로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 마련, 진로프로젝트, 인턴십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공방 운영 등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해 운영한다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 6.2 리빙랩 내용 “청소년, 청년 진로 플랫폼 카페 운영”

#### 1) 운영 방식 및 교육생태계 구축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카페와 공간을 운영한다. 역할분담, 메뉴개발, 공간 운영에 관련된 기획단 모집과 운영을 청소년들에게 위임한다. 매년 이 공간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주도하에 공간의 구성과 운영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을 돕는 역할로 청년 매니저가 함께 운영을 맡는데 청년 매니저는 공간운영에 대한 총괄과 멘토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 매니저는 공간운영 뿐 아니라 예산 확보 및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매개재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금산군의 아래와 같은 기관 단체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진로 카페 플랫폼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대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금산군의 청소년 교육과 지역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과 정책 사업 내용 등을 고민한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금산의 교육 생태계 마련과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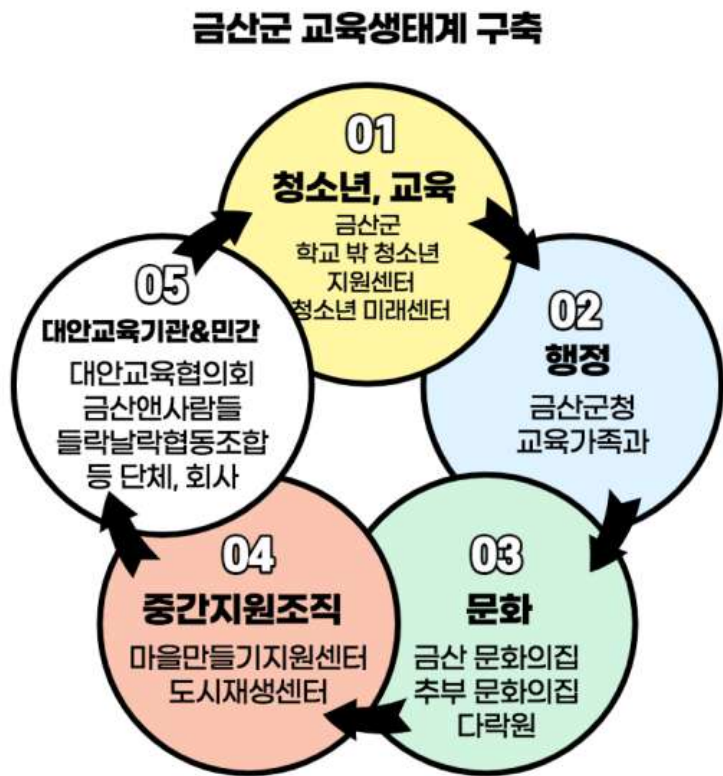


그림 16 금산군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 네트워크

## 2) 프로그램의 내용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실제 지역에서의 삶을 일구는 청년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이들과 관계를 맺고 청소년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선배와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예시>



그림 17 청소년 플랫폼 카페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1 : 창업인큐베이팅 프로젝트
  - 프로그램2 : 예술공방프로젝트 : 손기술을 활용해 디자인제품을 만들고, 판매, 전시
  - 프로그램3 : 프로젝트 공작소(프로젝트 준비 및 설계 기획) : 디자인싱킹 등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상상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4 : 로컬크리에이터 프로젝트 : 금산군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과 혁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 예) 금산양조장의 패키지 디자인, 금산 금빛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주민공간 만들기 등
- 프로그램5 : 지역 기반 진로 인턴십LTI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년 창업, 청년몰 등 현장 기반 인턴십 진로 프로그램

## 6.3 유사사례

### 1) 옥천군 청소년 카페 둠병



그림 18 옥천군 청소년 카페 둠병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장재원 국장은 “지역 청소년이 약 9천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인구가 갈 곳이 없어요. 근래 청소년공간이 지역의제로 떠오르면서 둠병이 그 역할이 했으면 했죠. 내년 옥천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한다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고 봐요. 만화책을 놓은 것도 청소년유치를 위한 방법이었죠. 장기적으로 마을학교, 나아가 전환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충북도교육청도 전환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 몽실학교, 경남창원 자유학교,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처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저희는 지원해주고 창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공간을 주는 거예요. 소금쟁이 책방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열기도 했어요.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에요. 청소년들과 ‘작당모의’하는 거죠. 관심 밖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지금은 평일 11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학원에 과외에 바쁘죠. 그래서 주말운영에 대해 논의 중이에요. 주말에는 청소년 바리스타 동아리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에요. 추가로 여길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도 반영할 예정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공간이면 더 아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옥천닷컴, “뭐하니? 둠병 가자!” 청소년 대안공간으로 떠오르는 소금쟁이 책방, 2019년 12월 5일)<sup>17)</sup>

17) <http://www.okcheon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



그림 19 카페 둠병의 청소년 활동과 공간

## 2) 산청군 명왕성

처음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산청에 귀촌귀농하신 분들 가운데 공감해주실 만한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게 되어 거의 연고도 없다시피 한 이곳에 이사를 왔죠.

배움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휴식과 회복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스스로 가꿔나가는 자치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잘 쉬고, 눈치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함께할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청소년 운영진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저는 운영진들이 공간을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움주는 역할로 고용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청소년 운영진들과 기획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후원인들을 모집해 2018년 10월에 문을 열게 되었어요.

명왕성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행성으로 인정받으며 태양계라는 시스템 안에 있다가 어떤 외부적인 기준으로 어느 순간부터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의 나이도 어느 시기에는 어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타자들의 기준에 의해 어느 시기에는 사회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점도 닮아있어요.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있는 대상처럼 생각되는 게 청소년의 존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역활동가 인터뷰/산청] 인간의 기준으로 태양계에서 밀려난 명왕성처럼 - 김한범, 지리산

### 3)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로잉”

농촌 지역 이행기 청(소)년의 지역 기반 진로탐색 프로젝트 “로잉”

‘넘나들며 배우기, 연결되어 일하기, 더불어 살아가기’ 세부안

#### 1. 제안배경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행기 청(소)년이 진학이 아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며, 특히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과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농촌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지역 사회 역시 그들에게 머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험을 사회적경제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경험을 가진 완주 고산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배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길 희망한다.

#### 2. 사업목표

이행기 청(소)년들이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행기 청(소)년들에게 개인과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행기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건강한 마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3. 대상 및 기간

대상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삶을 모색하고 싶은 고등학생(대안학교 포함),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등 이행기(19~24세) 청(소)년 10~12명

사업기간 :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 주 1~2회 / 2년

---

18) [https://jirisaneum.net/center\\_data/37997](https://jirisaneum.net/center_data/37997)



## 세부 사업내용

하나. 청(소)년의 준비와 실험 :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1) 지역과 나 그리고 우리를 알아가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

- 그룹 멘토링, 특강, 독서토론세미나, 글쓰기세미나

2) 지역과 일을 발견하는 탐색의 과정

- 청년&마을공동체탐방, 지역공동체 연대 활동

3) 지역과 함께 연결 되는 기획의 과정

- 팀프로젝트, 개별프로젝트(자기비전기획서)

4) 지역에서 더불어 살며, 연결되어 일하는 실행의 과정

- 인턴십(취업), 개별 혹은 팀 창업

둘. 지역의 준비와 협업 : 청(소)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획포럼

1) 지역과 청(소)년의 만남

- 지역 특강, 리빙라이브러리

2) 청(소)년이 지역에 묻다

- 열린토론

3) 지역과 청(소)년의 연결

- 팀프로젝트 및 개별프로젝트 발표, 분야별 그룹멘토링

기간	1년차				2년차
	4월	5~9월		10~12월	
과정	시작	배움	탐색	실험1단계	실험2단계, 개별맞춤형
목표	마인드셋(마음가짐)	넘나들며 배우기, 더불어 살아가기		더불어 살아가기,	연결되어 일하기
	지역과 나, 그리고 우리를 알아가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			지역과 일을 발견하고 연결되어 일하는 기획의 경험	지역에서 더불어 살며, 연결되어 일하는 경험
청소년의 준비와 실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 프로젝트 이해 - 아이스브레이킹	특강 - 인문학, 노동과 직업 - 지역사회 알아보기 - 글쓰기 미디어 읽기	탐방 - 마을공동체, 청년공동체 - 사회적경제조직 - 중간지원조직	개별프로젝트 - 자기 성장보고서 - 자기 비전 기획서	취업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네트워킹 - 참가자 네트워킹	기본소양 교육 - 관계형성 - 디지털리터러시	연대 -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팀 협업 프로젝트 - 지역 발견 프로젝트(지역 단체, 기관과 협업)	창업 - 개별창업 - 팀 창업
		세미나 - 독서토론, 글쓰기	인터뷰 - 질문 만들기 워크숍 - 멘토 인터뷰		멘토링(정기모임) - 격월로 운영
지역의 준비와 협업		기획포럼 1차 - 지역과 청소년의 만남	기획포럼2차 - 청(소년)이 지역에 질문 - 열띤 토론	기획포럼3차 - 지역과 청(소)년의 연결 - 협업프로젝트 자기비전기획서 발표, 분야별 그룹 멘토링	

표 25 완주군 씨앗협동조합 로잉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 6.4 기대효과

### ○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안 밖의 청소년들은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기 보다 도시로, 서울로 떠난다.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고, 지역을 떠난다.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민간의 노력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민간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에서 활동기반을 만들어가는 선배 세대의 노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지역에서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주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그 위에 다시 청소년들이 주체로 서게 된다.

청소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권리와 책임,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과감히 넘겨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간의 운영과 소통, 홍보 등 전반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이 결정이 비록 부족하고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정된 데로 이루어 졌을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쌓여 주체성이 된다.

### ○ 지역 기반 진로 탐색과 지역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역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많은 자원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경쟁과 자본을 피해 내가 원하는 일을 추구해볼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된다. 여건보다도 삶의 주체성과 지향을 조금 더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의 친구가 도시로 대학을 가고, 부모님과 지인들도 도시로 나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더구나 고향에, 지역에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지에 없을 수 있다.

내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빌 언덕을 만들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족한 자원들을 메꾸어 나간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 교육과 네트워크를 키워드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마음인 거 같아요.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지금이 조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금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함께 준비를 하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 선생님 인터뷰)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물적 지원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역처럼 단단하고 공고한 친족, 지연, 학연으로 이어져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자신의 존재를 평등하게 인정받고, 소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한편 이들을 네트워크 하여 지역 사회의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이해,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당당히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 대안교육, 대안학교를 넘어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

금산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은 그 존재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대안학교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에 적극 내어놓고, 이를 학교 안 밖을 연결하는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를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지원에 적극 활용하여 대안학교는 운영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다.

### ○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육성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가능성에 실험하고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이 중에는 지역을 단순히 상업행위, 창업행위의 소재나 자원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심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사실 외부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역의 자원과 콘텐츠는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자원을 객관적으로 또는 새롭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문화와 지역을 보는 관점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자원을 애정 어린 눈길로 주고받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혁신가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새롭고 엉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스스로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다.

## 에필로그

### [박성연]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금산을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반가웠는데, 이런 연구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금산은 아시다시피 충남 지역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충남에서도 특히나 공동체 정책, 사회혁신 관련 정책에서도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활동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2016년부터 충남도청을 오가면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시작하고, 금산에서도 활동의 기지개를 켜게 되면서 금산에도 청년 있어요! 청소년들도 활동해요라고 발신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발신이 2021년 충남사회혁신센터와도 연결되어 영광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들의 삶을 통해 느낀 것은 비록 주류의 삶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왔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들락날락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금산의 문화기획자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기록하고, 금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구 역량과는 상관없이 이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와 충남에 큰 존중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우리 연구진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지지해주신 충남사회혁신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작은 촛불을 하나 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활동이 충남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상한]

충남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오늘도 전국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장의 속도와 배움의 과정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학교 밖으로 벗어난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에게 적합하거나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기회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금산간디학교는 대안학교를 넘어, 마을을 이루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졸업생들이 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제정된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안학교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는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산간디학교 교사들과 들락날락협동조합 그리고 충남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대안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진학 청년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동시에 충남이 그들을 위해 애써왔던 다양한 정책들을 엮어 냈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인구 소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 문제들이 많지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충남사회혁신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산간디학교를 비롯한 대안교육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준혁]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에 기여하는 존재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해 분투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대안학교들은, 2021년 현재, 한국 사회와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섬머힐로, 미래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오래된 미래'로서, 수많은 교육활동가들의 영감의 진원지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안교육의 시대는 이제 끝물'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의 임무(?)덕분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과 활동을 좀 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좌표는 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되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교사)들이, 좋은 학교 한 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모델을 넘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엮어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다가오는 학습자중심의 평생학습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충남사회혁신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이 함께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 [조혁민]

저는 충남사회혁신센터 작은연구사업에서 학교밖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맡아 대안학교학생, 졸업생, 학교밖센터 및 대안학교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당하였습니다. 여러 학교 밖 청소년과 비진학청년(대안학교 졸업생)에게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20대 중반(24살 이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청년(18세~23세)은 대부분 지역에서 살기위해 네트워크(친구), 주거, 배움을 주로 원했고, 20대 중반(24살 이상)은 일자리를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년으로 한데 묶어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각 연령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학교 밖 청소년과 비진학청년이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살기위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지 않았던 만큼 이 연구는 그 부분을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으로써 이번 연구를 통해 내가 불안해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역에서 살고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년들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 연구 자료를 토대로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사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거버넌스 형태로 제안하며 직접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 연구를 지원해주신 충남 사회혁신센터에 감사합니다.

## [이세연]

금산군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을 처음 만들고 운영한지 벌써 6년째 접어들습니다. 2015년 금산군에서 청년활동을 시작해보자고 나섰던 무모한 도전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2013년 금산군 건천리 산골에 친구들이 농촌청년공동체를 만들 때만해도 청년당사자로서 금산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 의심했습니다. 비진학 청년으로서 마을을 이루고, 지역에서 삶을 일군다는 것이 가능한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3명만 모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한 활동을 정리해보고 나니,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비진학 청년으로서의 저의 삶의 이야기도 한 차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산군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 데에는 금산간디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그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 비진학 청년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한 서투른 행사에도 마음과 몸이 닿는 데까지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충남도청, 금산군청 행정 관계자분들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활동이 공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편견과 사회적 시선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자신 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 있게 청소년, 청년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와 제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리의 기회를 주신 충남사회혁신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이다숨]

금산간디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젝트 낭만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던 당당했던 20대 초반에 저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도 당당하게 사회에서 한 몫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학교와 사회의 거리감은 컸습니다. 그 괴리감을 알게 되기도 열심히 하고자하는 일에 도전했지만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멘토 없이는 더 나은 성장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 4학년이 되자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금산의 친구들의 활동을 보고 용기 있게 두루미책방을 함께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책을 매개로한 낭만적인 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도전했습니다. 금산의 네트워크와 청년물 지원정책, 지역 자원들이 없었다면 도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창업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두루미 책방은 저에게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대안학교에서 배운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정책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들의 규모와 지원 정책 그리고 예산은 크지 않았지만, 이들도 다양한 삶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